

새로운 再生産表式의 構想

—經濟學에 있어서의 두개의 戰線 (對「마르크스」·對「케인즈」)—

林 元 澤

目	次
序 言	
I. 「마르크스」經濟學에 있어서의 恐慌論과 再生産論이 分裂되어있다	
II. 恐慌論과 再生産論은 이렇게 統一되어야 한다	
III. Market Widening과 Market Deepening	

序 言

1. 恐慌論은 理論經濟學의 最後의 理論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恐慌論이 誘導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基礎理論부터 確立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經濟學이 誕生된지 200年이 되는 오늘에도 經濟學은 여전히 五里霧中을 헤매고 있으며, 가장 基礎的인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아직껏 定說이 確立되어 있지 않는 狀態에 있다. 따라서 恐慌論 같은 上部理論에 이르러서는 百說이 紛紛하며 그들 見解 사이에는 아무런 「共通의 廣場」도 찾아 볼 수 없게끔 되어 버렸다.

2.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의 景氣循環論은 巨視的 所得理論의 土臺 위에서 乘數理論과 加速度原理를 共通의 武器로 삼고 있다는 點에 하나의 特色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의 景氣循環論의 『誤謬는 理論的 一貫性에 留意해서 構成된 上部構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前提에 明確性和 一般性이 缺如되어 있는 바로 그 點』에 (「케인즈」『一般理論』序文, p. v)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케인즈」의 巨視的 所得理論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것은 所謂 「有效需要的 原理」인데, 그 「有效需要的 原理」는 總供給價格과 總需要價格이 均等하게 되는 點 (즉 $Z=D$)에서 企業者의 利潤은 極大化되고 따라서 그 點에서 所得도 決定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總供給과 總需要的 必然的 不均衡을 度外視해 버린 直接的·無媒介的 均衡理論은 그 出發點에서 恐慌의 必然性을 抹殺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恐慌의 必然性은 總供給과 總需要的 必然的 不均衡에서 成立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事後均衡的인 所得概念

으로써 「不均衡(矛盾)의 暴力的 均衡恢復現象」으로서의 恐慌을 說明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contradictio in adjecto* [形容矛盾]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的 景氣循環論이 出發點(基礎理論)에서 誤謬를 犯했듯이 「마르크스」經濟學的 恐慌論도 基礎理論[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의 誤謬 때문에 全面的으로 支離滅裂狀態를 甞하지 못하고 있다. 恐慌의 必然的·一般的·週期的 性格의 解明은 본시 「말더스」的 支配勞動量說의 根據 위에서만 可能하며 「리카도」的 投下勞動量說의 前提 위에서는 絶對로 不可能하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다. 「마르크스」가 「말더스」대신 「리카도」를 繼承했다는 事實은 그 自身の 理論體系의 不幸에 그치지 않고 理論經濟學 全體에도 커다란 禍를 미치는 結果가 되었다고 筆者는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恐慌論도 基礎理論의 誤謬 때문에 그릇된 方向으로 結論지워졌지만, 그러나 理論의 技巧을 넘어서 움직이는 「마르크스」의 銳利하고 透徹한 現實感覺은 그 理論體系의 混亂과 不透明性 속에서도 精密하고 技巧인 近代經濟學的 景氣循環論보다는 훨씬 貴重한 示唆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理論을 展開함에 있어 우선 「마르크스」의 恐慌論을 檢討하고 그에 대하여 內在的 批判을 加한 다음에 우리 自身の 理論을 展開하는 順序를 取하기로 한다. 그것은 또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的 景氣循環論의 共同的 理論的 出發點인 「有效需要의 原理」에 대하여도 하나의 致命的인 超越的 批判이 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I. 「마르크스」經濟學에 있어서는 恐慌論과 再生產論이 分裂되어 있다

1. 「近代社會의 經濟的 運動法則의 解明」 [『資本論』 第1卷 序文, 「아도라츠키」版 pp. 7-8]을 目標로 한 「마르크스」經濟學이 恐慌을 資本主義經濟의 固有現象으로 取扱하고 그 原因을 「資本主義의 基本矛盾」 즉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所有의 私的形態와의 矛盾」 [「레닌」, 『浪漫主義經濟學批判』, 『資本論』 第2卷 「아도라츠키」版, p. 551]속에서 찾으려고 한 것은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마르크스」自身은 『資本論』 및 그 밖의 著書에서 恐慌에 관하여 斷片的인 言及밖에 남기지 않았고, 그 斷片的인 言及조차 理論적으로 統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著書가 出刊되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斷片的인 言及을 中心으로 亞流들 사이에 訓詁學的·文獻學的 討論이 거듭되어 온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우리는 다음에 「마르크스」가 남겨놓은 斷片的 記錄 가운데에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려 그 文章들을 中心으로 「마르크스」의 恐慌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누군가가 購買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販賣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販賣했다고 해서 即時로 購買되는 것은 아니다. 直接的 生産物의 交換(物物交換)에서는 勞動生産物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勞動生産物을 獲得하므로 이들 두가지 行爲 사이에는 直接的 統一이 있지만, 流通은 이 統一을 서로 對立된 販賣와 購買로 分裂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直接的 生産物의 交換의 時間的·空間的 및 個人的 制限을 除去한다』[『資本論』 第1卷 p. 119]. 『恐慌의 可能性은 販賣와 購買의 分離속에 있다』[『剩餘價值學說史』 第2卷 第2部 日譯 改造社版 p. 272]. 즉 「마르크스」는 流通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 속에서 恐慌의 可能性(「第1形態」)을 보고 있다. 그러나 貨幣가 支拂手段으로서의 機能을 할 때도 恐慌의 可能性(「第2形態」)은 發生된다고 한다. 『恐慌은 그 第2의 形態에 있어서는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으로부터 發生한다』[前掲書, p. 275].

以上の 引用文章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貨幣經濟 [W—G—W'] 가운데에서, 즉 貨幣의 流通手段과 支拂手段으로서의 機能속에서 恐慌의 可能性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第2의 形態는 第1의 形態보다 具體的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가지 形態는 모두 全的으로 抽象的』[同上]이라고 말하고 있다.

2. 貨幣經濟 内部에 나타난 이와 같은 恐慌의 可能性은 資本의 流通過程에서는 어떻게 現象되는가?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다. 『恐慌의 一般의 可能性——販賣와 購買의 分裂——은 資本이 商品이며 또 商品에 다름없는 限에서는 資本의 運動속에 包含되어 있다』고 [前掲書, p. 279].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恐慌의 一般의 可能性은 資本의 運動過程속에 二重으로 주어져 있다. 첫째로 貨幣가 流通手段으로서 機能하는 限 購買와 販賣의 分裂에 의해서. 둘째로 貨幣가 支拂手段으로서 機能하며 價值尺度 및 價值實現으로서 두개의 相異한 瞬間에 作用하기 때문에』[同上]. 資本의 運動過程에서 惹起되는 販賣와 購買의 分裂相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資本의 商品形態로부터 貨幣形態로의 轉化에 대하여 다른 資本의 貨幣形態로부터 商品形態로의 再轉化가 對應하지 않으면 안되고... 하나의 資本의 生産過程으로부터의 離脫은 다른 資本의 生産過程에의 復歸와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資本의 再生産過程 또는 流通過程의 이와 같은 相互聯關은 한편에서는 分業에 의해서 必然的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偶然的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恐慌의 內容規定은 擴大된다』[前掲書, p. 275].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의 總流通過程 또는 再生産過程은 直接的 生産過程과 流通過程의 統一이며, 그 두개의 過程을 經過하는 하나의 過程이다. 이 속에 또 하나의 더욱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 또는 抽象的 形態가 있으며』[前掲書, p. 279], 『商品의

單純한 轉化에 즈음하여 나타나는 恐慌의 可能性은 直接的 生産過程과 流過程이 分離된
으로써 더욱 發展된다. 두 개의 過程이 圓滑하게 融合해서 進行되지 않고 서로가 對立하
게 되자 恐慌은 發生한다」[前掲書, pp. 271-2]는 것이다.

以上 引用한 「마르크스」의 여러 文章의 內容은 결코 明哲判明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만, 여하튼 그와 같은 表現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資本主義經濟 속에 나타난 「恐慌의 擴
大된 可能性」을 밝히려고 意圖한 것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또 이러한 恐慌의 可能性은 恐慌의 原因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恐慌의 一般的 可能性은 資本의 變形 그 自體이며 購買와 販賣의 時間的·空
間的인 分裂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恐慌의 原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恐慌의 가
장 一般的인 形態 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恐慌의 抽象的 形態를 恐慌의
原因으로 看做할 수는 없을 것이다. 恐慌의 原因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抽象的 形態가, 그 可能性의 形態가 可能性으로부터 現實性으로 轉化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일 것이다」[前掲書, p. 281].

3. 그러면 다음에는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 즉 資本主義經濟에 나타난 恐慌의 可能性
은 어떻게 必然的으로 現實性으로 轉化하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에 대
해서 明白한 答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는 『資本論』 第3卷 第30章에서 「恐慌의 窮極原因」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모든 現實의 恐慌의 窮極原因은 如前히 마치 社會의 絶對的 消費能力만이 限界인 양
生産力을 發展시키려고 하는 資本主義의 生産의 衝動과 比較해 본 大衆의 貧困과 消費制限이
다』[『資本論 第3卷 p. 528]. 그러나 이 文章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疑問을 자아내게 해준다.
「恐慌의 窮極原因」은 대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것과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은 어떠
한 關係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疑問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確信있는 答을
提示할 수 없다. 만은 이 「恐慌의 窮極原因」이야말로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을 現實性으로
바꾸어 놓는 必然的 契機라고도 解釋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恐慌의 原因이 무엇이
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抽象的 形態가, 그 可能性의 形態가 可能性으로부터
現實性으로 轉化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일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른바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을 現實性으로 바꾸어 놓
는 必然的 契機를 意味한 것치고서는 「恐慌의 窮極原因」은 너무도 模糊하고 抽象的인 것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恐慌의 窮極原因」에서는 相對的 過少消費 또는 相對
的 過剩生産이 主張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과 關聯되고 있느냐

나 하는 것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結果的으로는 이 「恐慌의 窮極原因」이 文獻의 根據가 되어 過少消費說이란 「마르크스」恐慌論의 第1의 解釋方法이 發生됨에 이르렀다.

4. 그런가 하면 어떤 「마르크스」經濟學者는 『資本論』 第3卷 第3篇에 說明되고 있는 「利潤率低下의 傾向의 法則」을 擴大解釋함으로써 恐慌의 必然性을 解明하려고 意圖하고 있다. 이것이 곧 「마르크스」恐慌論의 第2의 解釋方法이다. 그 要旨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特別利潤을 獲得하려는 資本家들은 새로운 改良된 生産方法을 採用하는데, 그것은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란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資本의 有機的構成이 高度化되면 必然的으로 利潤率은 低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利潤率의 低下는 다시 새로운 改良된 生産方法을 採擇케 하며, 이것은 또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를 招來함으로써 더욱 利潤率의 低下에 拍車를 加하는 作用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利潤率低下의 傾向의 法則」은 한편에서는 「資本의 絶對的 過剩生産」의 結果를 가져오게 하며, 또 한편에서는 相對的 過剩人口現象, 制限된 消費力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급기야는 恐慌을 發生케 한다고 한다.

「利潤率低下의 傾向의 法則」에 의한 恐慌의 必然性의 說明은,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恐慌의 促進作用을 한다는 것을 示唆해 준 點에 있어서는 確實히 一步前進의 感이 있지만 基本理論인 「利潤率低下의 傾向의 法則」이 과연 傾向의 法則으로서 成立할 수 있으나 하는 점에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利潤率低下의 傾向의 法則」과 恐慌論을 結付시키려는 亞流들에게 다음과 같이 反問하고 싶다. 만약에 利潤率이 低下되지 않고 反對로 上昇된다면 恐慌은 發生되지 않을 것이냐고.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恐慌은 보다 큰 利潤을 追求할 때 深刻化된다는 것은 마치 飽食이 消化不良症을 더욱 激甚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¹⁾

5. 『資本論』 第2卷 第3篇에서는 「社會的 總資本의 再生産과 流通」을 論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르크스」는 周知하는 바 다음과 같은 再生産表式을 提示하고 있다.

$$I. C_1 + V_1 + M_1 = W_1 \text{ (生産手段生産部門)}$$

$$II. C_2 + V_2 + M_2 = W_2 \text{ (消費資料生産部門)}$$

(1) 「P. 스위지」는 『恐慌發生의 直接的인 原因을 이루는 利潤率의 低下는 資本家가 自己네들이 生産해낸 商品價値를 完全히 實現시키지 못하는데서 發生되므로 이것은 實現恐慌(realization crisis)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利潤率低下를 實現問題와 結付시키고 있다.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 156)

[C 는 소비된 불변資本을 表示하는 價値, V 는 可變資本을 表示하는 價値, M 은 剩餘價値, 그리고 W 는 年生産物의 價値를 나타낸다.]

上記 2 部門分割의 再生産表式으로부터 「마르크스」는 單純再生産의 實現條件으로서

$$C_2 = V_1 + M_1$$

의 關係를 誘導해 냈고, 또 擴大再生産의 實現條件으로서

$$C_2 + C_2' = V_1 + V_1' + M_1'$$

[C' 는 追加不變資本의 價値, V' 는 追加可變資本의 價値, M' 는 消費되는 剩餘價値를 나타낸다]의 關係를 誘導해 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再生産實現을 위한 條件을 恐慌의 可能性으로 辯證法的인(!) 飛躍을 敢行시켰다. 즉 「...單純한 規模 또는 擴大된 規模에 있어서의 再生産의 正常的인 進行의...여러 條件을 發生케 하는데, 이 여러 條件은 또 그와 同數의 變則的인 進行의 여러 條件으로, 恐慌의 可能性으로 一變한다. 왜냐하면 均衡 그 自體는 —이 生産의 自然發生的 形態에서는 — 하나의 偶然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資本論』 第2卷 pp. 500—501].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는 前記 再生産의 實現條件의 否定的 形態를 그대로 恐慌의 可能性으로 看做한 셈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恐慌論에 또 하나의 訓誥學的 見解가 發生되었으니 所謂 生産部門間 「不比例」의 理論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곧 「마르크스」恐慌論의 第3의 解釋方法이 된다. 이러한 生産部門間 不比例의 理論을 強調한 最初의 學者는 다음아닌 「T. 바라노프스키」였었다. 그는 恐慌의 두 가지 說明方法인 利潤率低下의 理論과 過少消費說을 다음과 같은 理由로써 둘 다 排擊하였다.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는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利潤率의 低下를 가져오지 않고 도리어 利潤率의 上昇을 가져오게 하며, 또 生産手段生産部門과 消費資料生産部門이 서로 比例的 關係만 維持하면서 發展한다면 消費가 아무리 적어져도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역시 再生産表式을 통해서 論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比例理論을 끝내 貫徹하는 結果는 결국 「마르크스」恐慌論을 部分的 恐慌理論으로 끌어 놓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擴大再生産의 경우에 있어서] 實現條件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하고

$$C_2 + C_2' < V_1 + V_1' + M_1'$$

의 關係가 成立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生産手段의 過剩生産, 消費資料의 過少生産을 意味하게 되기 때문이다.⁽²⁾

(2) 「스위지」는 「T. 바라노프스키」의 不比例理論은 「R. 힐퍼딩」의 著書『金融資本論』(1910年刊)에서 積極的으로 支持됨으로써 그 理論의 地位는 確立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스위지」의 前

그리고 여기서 「마르크스」가 提示한 恐慌의 可能性과 앞서 우리가 본 「마르크스」의 이른바 「發展된 恐慌의 可能性」 사이에는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表式에 의해서 提示된 恐慌의 可能性도 嚴密히 따져보면 必然的인 可能性이 아니라 偶然的인 可能性을 表示한데 不過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前述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再生産의 實現條件의 成立은 「그 自體 하나의 偶然」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式으로 말하면 恐慌의 發生도 역시 하나의 偶然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마르크스」는 再生産의 實現條件에 立脚해서 生産手段生産部門의 資本蓄積率, 剩餘價値率, 生産手段生産部門과 消費資料生産部門의 均衡等 세가지 條件을 假定하고, 擴大再生産이 順調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表式으로써 例示하고 있다[『資本論』第2卷 p. 516 ff].

第1年度

$$4000 C_1 + 1000 V_1 + 1000 M_1 = 6000 M_1$$

$$1500 C_2 + 750 V_2 + 750 M_2 = 3000 W_2$$

第2年度

$$4400 C_1 + 1100 V_1 + 1100 M_1 = 6600 W_1$$

$$1600 C_2 + 800 V_2 + 800 M_2 = 3200 W_2$$

第3年度

$$4840 C_1 + 1210 V_1 + 1210 M_1 = 7260 W_1$$

$$1760 C_2 + 880 V_2 + 880 M_2 = 3520 W_2$$

이 表式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比例的 發展[生産手段生産部門과 消費資料生産部門이 均衡을 維持하면서 發展하는 것]이 實際로 可能하다는 것을 例示하였다고 볼 수 있다.

「R. 록셈부르크」는 그의 著書 『資本蓄積論』 가운데에서 「마르크스」의 表式의 경우와는 反對로 不比例的 發展의 경우를 例示해 보였다. 즉 「록셈부르크」는 兩部門의 蓄積率, 剩餘價値率의 漸次的 增大,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等 세가지 條件을 假定하고 다음과 같은 表式을 提示하였다.

第1年度

$$5000 C_1 + 1000 V_1 + 1000 M_1 = 7000 W_1$$

$$1430 C_2 + 285 V_2 + 285 M_2 = 2000 W_2$$

揭書, pp. 159—60]. 그리고 또 「스위지」는 이 生産部門間 不比例에 의한 恐慌論은 「資本主義 再生産의 無政府性」(anarchy of capitalist production)의 前提위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p. 157].

第2年度

$$5428^{2/7} C_1 + 1071^{3/7} V_1 + 1083 M_1 = 7583 W_1$$

$$1587^{5/7} C_2 + 311^{2/7} V_2 + 316 M_2 = 2215 W_2$$

第3年度

$$5903 C_1 + 1139 V_1 + 1173 M_1 = 8215 W_1$$

$$1726 C_2 + 331 V_2 + 342 M_2 = 2399 W_2$$

이 表式에서 「룩셈부르크」는 第2年度에 16, 第3年度에 45의 生産手段의 不足이, 換言하면 第2年度에 16, 第3年度에 45의 消費資料의 過剩이 發生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R. Luxemburg, *Die Akkumulation des Kapitals*, 1923, pp. 261—3]. 그리하여 그는 이 不均衡을 克服하는 手段으로서 剩餘價値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不生産的 消費」(unproduktive Konsumtion) 또는 「第3者」(dritte Personen) 즉 資本主義的 生産에 直接 參加하는 資本家와 勞動者 以外의 消費者를 必要로 한다는 結論을 誘導해 뒀다⁽³⁾ [前掲書, p. 273]. 이것은 확실히 「마르크스」의 表式과 다른 것」[前掲書, p. 275]이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前進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利潤實現不可能의 理論을 恐慌論에까지 發展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룩셈부르크」의 利潤實現不可能의 理論은 體系的인 恐慌論에까지 發展되지 못했고 또 部分的 恐慌論의 要素까지도 內包하고 있지만, 그러나 消費資料의 一般的인 供給過剩의 必然性を 論證하고 또 거기에 立脚해서 「帝國主義」의 理論까지 展開한 點等으로 미루어 思想系譜로 따져 「룩셈부르크」는 비록 名目上으로는 「마르크스」學派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實質上에 있어서는 「달더스」系列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이 생각한다. 「룩셈부르크」의 「帝國主義」에 대한 定義는 다음과 같다. 『帝國主義는 아직 沒收되지 않은 非資本主義的 世界環境의 殘餘部分을 獲得하려고 하는 競争에 있어서의 資本蓄積過程에 있어서의 政治的 表現이다』⁽⁴⁾ [前掲書, p. 316]. 「레닌」은 「마르크스」의 세가지 假定과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란 또 하나의 假定, 合計 네개의 假定위에 立脚하여 「마르크스」式 比例의 發展의 새로운 表式을 提示하였다[『이

(3) 「R. 룩셈부르크」는 「資本主義的市場」(kapitalistischer Markt)을 「內部市場」(innerer Markt), 「非資本主義的 社會環境」(nichtkapitalistische soziale Umgebung)을 「外部市場」(äußerer Markt)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獨逸工業과 英國工業의 商品交換은 「資本主義的 市場」 「內部市場」이 되고, 獨逸工業과 獨逸農業의 生産物交換은 「非資本主義的市場」 「外部市場」이 된다. 따라서 「第三者」는 물론 「非資本主義的市場=外部市場」이 된다[「룩셈부르크」의 前掲書, p. 288].

(4) 「歷史的으로 생각하면 資本蓄積은 資本主義的 生産方法과 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과의 사이에 進行되는 新陳代謝의 過程(ein Prozeß des Stoffwechsels, der sich zwischen der kapitalistischen und den vorkapitalistischen Produktionsweisen vollzieht)이다. 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 없이는 資本蓄積은 行하여지지 않는다. 資本蓄積은 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을 잡아 먹고 同化해 감으로써만 成立된다」[R. 룩셈부르크 前掲書, pp. 334—335].

른바 市場問題에 관해서]].

第 1 年度

$$4000 C_1 + 1000 V_1 + 1000 M_1 = 6000 W_1$$

$$1500 C_2 + 750 V_2 + 750 M_2 = 3000 W_2$$

第 2 年度

$$4450 C_1 + 1050 V_1 + 1050 M_1 = 6550 W_1$$

$$1550 C_2 + 760 V_2 + 760 M_2 = 3070 W_2$$

第 3 年度

$$4950 C_1 + 1075 V_1 + 1075 M_1 = 7100 W_1$$

$$1602 C_2 + 766 V_2 + 766 M_2 = 3134 W_2$$

第 4 年度

$$5467\frac{1}{2} C_1 + 1095 V_1 + 1095 M_1 = 7657\frac{1}{2} W_1$$

$$1634\frac{1}{2} C_2 + 769 V_2 + 769 M_2 = 3172\frac{1}{2} W_2$$

이 「레닌」의 表式에 의하면, 『生産手段을 위한 生産手段이 가장 急速히 增大되고 다음에는 消費資料을 위한 生産手段이 增大되고 消費資料의 生産이 가장 緩慢하게 增大된다』 [前掲書, 日譯 國民文庫版, p. 18]는 事實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表와 같은 結果가 誘導되기 때문이다.

	生産手段을 위한 生産手段		消費資料을 위한 生産手段		消費資料		社會的 總生産物	
第 1 年度	4000	100%	1500	100%	3000	100%	9000	100%
第 2 年度	4450	111	1550	103	3070	102	9620	107
第 3 年度	4950	125	1602	106	3134	104	10234	114
第 4 年度	5467 $\frac{1}{2}$	137	1634	108	3172	106	10730	120

그리하여 「레닌」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産手段의 生産이 消費資料의 生産보다 急速히 增大된다』 [前掲書, p. 20]는 것을 다짜고짜로 「法則化」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生産의, 따라서 또 國內市場의 發展은 消費資料의 增大에 의해서 보다도 生産手段의 增大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主張하여 [『러시아』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發展], 日譯 岩波文庫版 上卷 pp. 53—4], 海外市場開拓의 不可避性을 否認하였다. 『外國市場의 開拓은 實現問題와 아무런 關聯도 갖지 않는다』 [『浪漫主義經濟學批判』, 『資本論』 第 2 卷, 「아도라츠키」版 p. 546]. 『生産物은 資本主義社會에서 實現될 수 있다. … 이 實現을 說明하기 위해서 外國貿易 또는 「第 3 者」를 介사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다』 [「매네지다노프」氏에 대한

回答), 『이론과 市場問題에 관해서』, 日譯 p. 111]. 이렇게 「레닌」은 「룩셈부르크」의 (剩餘價值)實現不可能論을 否定했다.

그러면 「레닌」은 恐慌을 어떻게 說明하려고 했을까. 『恐慌에 先行되는 時期에 있어서야 말로 勞動者의 消費는 높아진다. 過少消費는 여러가지 經濟制度 밑에 있어서도 存在했지만, 恐慌은 다만 하나의 制度——資本主義制度만의 特殊한 標識가 되고 있다. 이 理論은 恐慌을 다른 矛盾에 의해서, 즉 生産의 社會의 性格과 取得의 私的·個人的인 樣式과의 矛盾에 의해서 說明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두가지 恐慌論은 恐慌에 대해서 전혀 別個의 說明方法을 취하고 있다. 第1의 理論은 恐慌을 勞動者階級에 의한 生産과 消費와의 矛盾에 의해서 說明한다. 그런데 第2의 理論은 生産의 社會의 性格과 取得의 私의 性格과의 矛盾에 의해서 說明한다. ……즉 第1의 理論은 過少消費에 의해서 說明하고, 第2의 理論은 生産의 無秩序에 의해서 說明한다』 [「레닌」, 『浪漫主義經濟學批判』, 『資本論』 第2卷 「아도라츠키」版 p. 551]. 『그러나 이 事實(過少消費)을 資本主義生産 全體의 一部分에 관한 事實로서 取扱하고, 그에 適當한 從屬的地位(untergeordneter Platz)를 賦與한다. 이 事實(過少消費)은 現代의 經濟制度의 다른 보다 深刻한 基本的인 矛盾에 의해서, 즉 生産의 社會의 性格과 取得의 私의 性格과의 矛盾에 의해서 發生되는 恐慌을 說明할 수 없다』 [前掲書, pp. 551—2]. 이리하여 「레닌」의 理論에 있어서는 生産部門間 不比例의 理論과 過少消費說이 둘 다 包攝되고 있지만, 不比例의 理論은 過少消費說보다 優越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레닌」에 있어서는, 「T. 바라노프스키」에 있어서와 같이 生産手段의 生産의 消費資料의 生産으로부터의 「絶對的獨立性」이 主張되고 있지 않고 그 「相對的獨立性」이 主張되고 있을 뿐이다.

現存하는 美國의 「마르크스」經濟學者 「P. 스위지」는, 恐慌發生의 直接的 原因인 「利潤率의 低下」는 商品의 價値가 完全히 實現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恐慌은 結局 「實現恐慌」(realization crisis)에 다름없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過去에 「마르크스」主義文獻에 나타난 모든 恐慌論은 이 「實現恐慌」의 理論에 歸着되며 그것은 다시 또 (1) 生産部門間 「不比例」(disproportionality)의 理論과 (2) 「過少消費」(underconsumption)說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스위지」는 「마르크스」恐慌論을 解釋하고 있다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 156]. 그러나 「스위지」는 恐慌의 原因으로서 過少消費說에 대해서 不比例理論을 對置시키는 方法은 잘못이며, 過少消費는 不比例의 하나의 『特殊한 「케이스」』라고 하고, 從來에 流行하고 있던 「마르크스」恐慌論의 두가지 解釋方法을 折衷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前掲書, pp. 183—4]. 그 뿐 아니라 「스위지」는

「마르크스」恐慌論의 또 하나의 解釋方法인 「利潤率의 低下」도 「實現恐慌」이란 概念을 통해서 다른 두가지 解釋方法과 關聯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위지」는 過少消費의 原因은 $\frac{\text{消費增加率}}{\text{生産手段增加率}}$ 의 比率이 漸次的으로 低下되는데 대해서 $\frac{\text{消費資料供給量의 增加率}}{\text{生産手段增加率}}$ 의 比는 安定되고 있다는 點에서 찾고 있다.]

7. 以上 우리는 「마르크스」가 남긴 몇몇 斷片的 文章을 통해서 그의 恐慌에 대한 見解가 示唆적이긴 하지만 充分히 明哲判明하지 않고 또 體系化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서로 矛盾되는 點도 적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게 한다면, 細細한 缺點은 且置하고 「마르크스」恐慌論의 最大缺陷은 體系上 그것이 再生産論에 包含되고 있지 않다는 바로 그 點에 있다고 指摘하고 싶다. [이러한 體系上的 缺陷도 따지고 보면 基礎理論의 誤謬에서 結果된 것이다.]

原則적으로 再生産論은, 擴大再生産과 縮小再生産을 取扱한 두 개의 章에다가 擴大再生産이 縮小再生産으로 急激히 바꾸어지는 轉換過程, 즉 恐慌을 取扱한 또 하나의 章을 합쳐 合計 세개의 章으로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의 發展은 擴大再生産 만으로써 이루어지는 直線的 發展이 아니고, 擴大再生産과 縮小再生産의 交替的 發展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生産의 基本的 經濟法則이 利潤極大化라고 한다면, 資本主義의 發展도 宜當 直線的인 擴大再生産의 過程으로서 나타나야 옳을 일인데, 事實은 擴大再生産과 縮小再生産의 交替的 發展過程으로서 나타났으며, 또 擴大再生産으로부터 縮小再生産으로의 轉換過程이 곧 恐慌現象이고 보면 恐慌의 解明이야말로 再生産論의 核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換言하면 恐慌論은 再生産論의 一部이면서도 그 中心的位置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問題點이 巨視적으로 잘 捕捉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이 여겨진다.

그리하여 再生産論은 「恐慌論 없는 再生産論」이 되고 말았고, 恐慌論은 再生産論과 分離되어 결국 「마르크스」恐慌論은 큰 줄거리에서 混亂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룩셈부르크」, 「레닌」이, 여러 많은 假定위에 立脚한 어떤 特殊한 表式에서 다짜고짜로 法則을 誘導하려 한 것도, 역시 理論面에서 볼 때는 誤謬를 犯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恣意的인 一般化」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理論이 [특히 「룩셈부르크」의 理論은 그렇다!] 비록 理論構成面에서 볼 때는 誤謬를 犯했다고 하나, 現實感覺面에서 볼 때는 相當한 比重의 妥當性을 지니고 있

다는 事實은, 뒤에 가서 우리의 理論이 展開되는 過程에서 저절로 밝혀질 機會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註(8) 參照]. 그러면 올바른 恐慌論·再生産論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Hic Rhodus, hic salta! [여기가 「로두스」섬이다. 여기서 춤추라!]

II. 恐慌論과 再生産論은 이렇게 統一되어야 한다

1. 前記한 바와 같이, 恐慌이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縮小再生産으로 바뀌어지는 急激스러운 轉換局面이라고 하면, 그것은 擴大再生産過程속에서 準備되고 造成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見解가 成立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供給過剩의 可能性이 擴大再生産過程에서 現實化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면 供給過剩의 可能性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基礎理論의 問題로 되돌아 가게 된다.

「마르크스」는 冒頭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른바 「價値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을 그 理論體系의 礎石으로 삼았으며, 그 前提의 土臺위에서 利潤을 說明해 냈고 「剩餘價値란 概念을 통해서」 또 價格을 說明하려고 意圖하였다. 즉 産業資本이

$$G—W……P……W'—G'$$

와 같은 流通過程을 거친다면, 利潤[剩餘價値]은 生産過程 $W…P…W'$ 에서 發生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W < W'$]. 왜냐하면 「價値法則」[等價交換의 法則]에 따라서 $G = W$, $W' = G'$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W < W'$ 를 「마르크스」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勞動力의 價値 [必要勞動時間]와 使用價値[勞動日]의 差[剩餘勞動時間]로써 說明하였다. 「消費된 生産手段의 價値는 그냥 生産物로 移轉된다.」 또 「마르크스」에 의하면 價格은 價値의 「貨幣名」[『資本論』 第1卷 p. 106]이므로 價格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費用과 同意語(tautology)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리카도」式 投下勞動量說의 延長理論인 「마르크스」의 「價値=社會的 必要勞動時間」의 規定에서 當然히 誘導되는 結論이며, 그것을 表現하기 위하여 「費用價格」(Kostpreis)이란 야릇한 概念까지 使用되었다. 그리하여 利潤은 「現實的 費用價格」과 「資本家的 費用價格」의 差額으로 表示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理論의 非現實性和 矛盾點은 우리의 理論이 展開되는 過程에서 저절로 밝혀질 줄 안다.

2.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等價交換」이란, 그야말로 하나의 偶然的 現象에 지나지 않으며 「不等價交換」이야말로 日常的·必然的 現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資本主義經濟란 「不等價交換」이 하나의 制度로서 確固不動하게 確立된 體制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利子를 包含한 모든 形態의 利潤은 資本의 流通過程에서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發生된다는 것

이 우리의 見解다. 그리고 이러한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는 背後에는 投下勞動量보다 더 많은 勞動量을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려는 欲望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以上은 本質面에서 把握한 利潤의 內容이지만, 現象面에서 볼 때는 그것은 單純히 價格과 費用의 差額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價格은 支配勞動量, 費用은 投下勞動量의 貨幣的 表示다]. 그러므로 利潤追求가 資本主義의 基本的 經濟法則이라고 하면, 價格[支配勞動量]은 費用[投下勞動量]보다 恒常 커야 되며 絶對로 一致될 수 없다는 것이 資本主義의 價格形成의 特色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見解가 「말더스」의 見解와 一致되는 見解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認定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말더스」는 다음과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下에 있어서의 商品生産의 條件은 그 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이 그 商品에 投下된 勞動量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資本家가 받는 利潤量은 그 超過分の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1953, p. 33]. 『利潤은 산 勞動과 對象化된 勞動의 等價交換에 의해서 發生되지 않고, 이 交換에서 等價를 支拂하지 않고 取得한 산 勞動의 部分 즉 資本이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取得한 不拂勞動의 部分에서 發生한다』[前掲書, p. 128]. 물론 「마르크스」도 이러한 「말더스」의 見解에 대해서 無知할 理가 없고, 『資本論』 第1卷 第4章에서는 價格引上(Preiszuschläge)에서 利潤이 發生된다는 見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反駁을 加하고 있다. 만약 어떤 商品販賣者가 名目的으로 10%의 價格引上을 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商品販賣者가 購買者가 된다면, 다른 商品販賣者의 價格引上에 의해서 그 만큼의 損害를 보게 되니까 結局 利得損失이 없게 된다고.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攻擊은 『販賣者가 購買者가 되며 購買者가 販賣者가 되는 商品交換의 範圍內』에서만, 즉 資本家 相互間의 關係에서만 適用될 수 있으며, 資本家 對 非資本家의 購買者, 이를테면 資本家 對 勞動者의 關係에서는 전혀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의 理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렉시스」(Lexis)의 말은 利潤이 資本家的 販賣者와 非資本家的 購買者[勞動者] 사이에서 發生된다는 것을 아주 正確히 表現해주고 있다. 『資本家的 販賣者 즉 原料生産者·製造業者·都賣商人·小賣商人들은 各其 自身이 사는 값보다 더 비싸게 販賣함으로써, 즉 各自의 商品의 費用보다 一定率만큼 價格을 引上시키므로써 利潤을 얻는다. 다만 勞動者만은 그러한 價格引上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는 資本家에 대한 不利한 立場 때문에 그 勞動을 必要生活費로써 不得已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리하여 이 價格引上은 購買者인 賃金勞動者에게만 充分한 意義를 갖게 되며 그리하여 總生産物의 價値의 一部分의 資本家階級에의 移轉을 發生케 한다』[『資本論』 第3卷 「엔겔스」 序文 p. 11, 下點筆者]. 거의 完全無缺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利潤에 관한 이 「렉시스」의 命

題가 『資本論』을 통해서 우리에게 傳해진 것은 그야말로 一種의 「아이로니」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성싶다. 「[엥겔스]는 이 命題를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贊同하고자 引用한 것이 아니고 그 「俗流經濟學的」 見解를 여지없이 粉碎하기 위해서 引用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支配勞動量說·不等價交換의 理論으로부터는 利潤의 最後負擔者가 非資本家的 購買者이며, 따라서 素材面에서 볼 때 利潤의 實體는 非資本家的 購買力이라는 結論이 쉽게 誘導될 수 있을 줄 안다. 이 支配勞動量說·不等價交換理論이 더욱 完璧化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先行原理가 論議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取扱할 必要가 없다. 여기서는 다만 우리는 交換法則으로서 「리카도」=「마르크스」命題를 取하지 않고, 「말더스」의 命題를 取한다는 點단을 밝혀두는 데 그치기로 하겠다. (5)

$$\begin{aligned}
 & \text{利潤} = \text{價格} - \text{費用} \quad [\text{現象面}] \\
 & = \text{支配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quad [\text{本質面}] \\
 & = \text{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 \\
 & = \text{非資本家的 購買力} \quad [\text{素材面}]
 \end{aligned}$$

3. 利潤이 「[마르크스]가 主張한 바와 같이」 生産過程에서 資本家가 勞動者를 搾取함으로써가 아니라 流通過程에서 資本家的 販賣者가 非資本家的 購買者를 搾取함으로써 形成된다는 理論위에서만 資本主義生産에 固有한 恐慌現象의 內在의 可能性이 올바르게 誘導될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다. 왜냐하면 費用에다 利潤을 加算해서 價格을 形成하는 바로 그 資本家的 價格形成의 行動속에 供給過剩의 可能性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具體적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産業利潤은 産業資本의 流通過程에서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獲得되므로

$$\begin{aligned}
 & G \text{---} W \text{.....} P \text{.....} W' \text{---} G' \\
 & G < W, W = W', W' < G'
 \end{aligned}$$

와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이것은 「마르크스」의 見解와 正反對의 見解다]. 그러므로 産業利潤은 「W. 쏘바르트」의 말과 같이 「『近世資本主義』 第1卷 日譯 pp. 473—4」, 費用縮小[G < W], 販賣價格의 引上[W' < G']에 의해서 增殖되며 「[쏘바르트]는 利潤增殖의 方

(5) 어떠한 交換法則을 取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經濟學體系의 方向이 決定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交換理論이야말로 經濟學의 terminus a quo[出發點]을 構成한다고 할 수 있다. 經濟學이 誕生된지 200年이 되는 오늘에도 交換法則에 관해서 普遍的인 定說이 確立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可嘆할 노릇이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참된 交換法則이 全然 發見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發見은 되었지만 「[말더스]에 의해서」, 다만 普遍化되지 않았고, 그 위에 理論의 上部構造가 構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法으로 이 밖에 資本의 回轉期間의 短縮도 들고 있다], 따라서 勞動者는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生産過程에서 $[W \cdots P \cdots W']$ 단 한번 資本家에 의해서 擄取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G \rightarrow W$ 過程과 $W' \rightarrow G'$ 過程에서 資本家에 의해서 두번 擄取당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6) 그리고 産業資本의 運動을 費用·利潤·價格의 關係에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K(G) + B = P(G')$$

[K 는 費用, B 는 利潤, P 는 價格]. 즉 投下資本額(G)은 總費用(K)을, 回收資本額(G')은 總價格(P)을 各各 나타낸다. 그러면 費用에 利潤을 加算해서 價格을 形成하는 「價格引上」의 資本家的 行動이, 어째서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는 말인가? 社會的 總資本의 流通이란 見地에서 볼 때, $G \rightarrow W$ 過程에 投下된 資本(G) 즉 總費用(K)이 $W' \rightarrow G'$ 過程에서 購買力으로 나타날 것인즉, 投下資本額 즉 總費用이 모두 購買力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實際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結局 利潤額(B) 相當의 供給過剩現象 또는 購買力不足現象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價格現象에 利潤이 加算되지 않는다면 利潤額相當의 供給過剩現象 [購買力不足現象]이 發生될 可能性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供給過剩現象이 資本主義的 價格形成을 前提로 하는 限 必然的이고 一般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即刻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主義的 價格形成이 一般的 供給過剩의 根據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今期의 價格形成에 加算된 利潤額과 同額의 前期의 利潤額이 全部 購買力으로서 支出된다면 今期의 一般的 供給過剩의 根據는 消滅되고 마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利潤額이 增加되지 않을 때는 [資本主義的 單純再生産] 供給過剩現象은 그냥 可能性으로 머무르고 必然化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리하여 利潤實現의 困難性, 즉 供給過剩의 可能性은 利潤의 [따라서 資本의] 後天的 性格에 관한 事項이 아니고, 先天的 素質에 관한 事項이란 것이 밝혀졌을 줄 안다. 다시 말하면 利潤의 存在 自體가, 즉 資本主義的 價格形成自體가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形成한다고 할 수 있다. 「말더스」도 이 點에서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찾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르크스」도 「말더스」의 理論을 『剩餘價値學說史』 第3卷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

(6) 그러므로 資本主義生産關係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은 $G \rightarrow W$ 와 $W' \rightarrow G'$ 의 두개의 過程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賃金引上和 價格引上을 둘러싸고, 그리고 資本主義의 歷史는 勞動者가 $G \rightarrow W$ 過程에서 戰取해 낸 成果[賃金引上]를 $W' \rightarrow G'$ 過程에서 價格引上을 통해서 다시 再奪取當하고 있는 反復現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Wage-Price Spiral, 「코스트 인플레이션」 등의 現象은 資本主義的 階級鬭爭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다. 『交換者가 서로 商品을 같은 率만큼 비싸게 팔아 같은 率만큼 搾取하려고 할 때에는, 利潤이 어디서 생기는지 理解하기 困難할 것이다. 이 缺點은 資本家階級과 勞動者와의 交換 및 資本家階級 相互間의 交換外에 購買者로서 形成되는 第3階級이 參加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이 階級은 $G-W$ 는 거치지만 $G-W-G'$ 는 거치지 않은 階級이다. 이 경우 資本家階級은 相互間의 交換에 의해서 利潤을 實現하지 않고, 첫째로는 勞動者와의 交換에 의해서, 둘째로는 第3의 種類의 購買者와의 交換에 의해서 利潤을 實現하게 될 것이다』[日譯 改造社版 p. 62]. 『…勞動者 以外の 다른 需要가, 다른 購買者가 必要하다. 그렇지 않으면 利潤은 전혀 存在할 수 없을 것이다. …[「말더스」에 의하면] 資本家가 利潤을 實現하고 商品을 그 價値로써 팔기 위하여는 販賣者아닌 購買者가 必要하다』[同上] 『販賣者아닌 購買者란 生産者아닌 消費者 즉 不生産的의 消費者를 가리킨다』[同上]. 즉 資本主義體系内에서는 供給過剩은 不可避하며, 그것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不生産的의 消費」 즉 Demand without Supply [供給없는 購買力]가 必要하다는 것이 「말더스」의 見解다. 이 「말더스」의 「不生産的의 消費」에 관한 「비전」이 1次大戰後에 Spending Policy로서 現實化된 것을 보면 「말더스」의 供給過剩에 대한 見解는 全적으로 옳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4. 앞에서는 利潤自體가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現實性으로 바꾸어 놓는 必然的의 契機는 무엇일까? 우리의 거기에 대한 答은 다음과 같다. 利潤極大化法則에 의해서 推進되는 資本主義的의 擴大再生産이 바로 그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擴大再生産이 推進되는 過程에서는 한쪽에 그것을 否定하는 要因도 同時에 造成 準備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擴大再生産過程에서 恐慌은 어떻게 造成되고 準備되어 爆發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再生産表式을 利用해서 「證明」해 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의 矛盾點부터 밝혀놓아야 되겠다.

(1) 「마르크스」의 表式은 價値表示로 되어 있는데, 「마르크스」의 價値法則이 前述한 理由에 따라서 取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價値表示의 表式도 自然 意味를 잃고 말 것이다. 價値表示는 당연히 價格表示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2) 「마르크스」는 價値表示의 表式으로부터 均衡條件을 誘導해 낼 때 time lag를 度外 視함으로써 重大誤謬를 犯하고 말았다. 「마르크스」는 消費資料 W_2 에 대한 需要를 [單純 再生産의 경우] $V_1 + M_1 + V_2 + M_2$ 라고 했지만, 價値面에서가 아니라 價格面에서 보면, M_1, M_2 는 W_1, W_2 가 販賣된 然後에 實現(入金)되므로 그것은 絶對로 W_2 의 購買力으로 돌려질 수 없는 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價値面에서 M_1, M_2 가 W_2 에 대한 需要로 나

타난다고 본 것은 貨幣를 통한 交換 대신 物物交換의 見地에 立脚한 點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價格表示・期間分析의 두가지 觀點에 立脚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再生産表式을 꾸며보려고 한다.

(1) 生産手段生産部門・消費資料生産部門의 各生産物의 總供給價格 X 는, 原料代와 減價償却費 U , 賃金 A , 産業(生産者)利潤 B , 流通費 Z , 商業利潤 H 등의 合計로 表示될 수 있으며,

(2) t 時點에 市場에 提供되고 있는 生産手段生産部門・消費資料生産部門의 各生産物의 總供給價格을 X_{1t}, X_{2t} 로 表示하기로 하고, 그 總供給價格의 構成單位 U, A, B, Z, H 에도 各各 部門表示・期間表示를 한다면, 우리의 再生産表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X_{1t} = U_{1t} + A_{1t} + B_{1t} + Z_{1t} + H_{1t} \text{ [生産手段生産部門]}$$

$$X_{2t} = U_{2t} + A_{2t} + B_{2t} + Z_{2t} + H_{2t} \text{ [消費資料生産部門]}$$

그리고 各部門의 生産物이 自體部門의 消費와 其他部門의 消費의 두가지 方向으로 供給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複線進行的構造].

이제 t 時點에 있어서의 消費資料 X_{2t} 에 대한 需要를 C_t 라고 하면 C_t 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C_t = C(A_{1t}) + C(A_{2t}) + C(B_{1t-1}) + C(B_{2t-1}) + C(Z_{1t}) + C(Z_{2t}) + C(H_{1t-1}) + C(H_{2t-1})$$

여기서 $C(A_{1t})$ 등은 A_{1t} 등에서 支出되는 消費需要를 意味한다. 다음에 注意해야 할 點은 消費資料 X_{2t} 의 購買力이 될 수 있는 利潤에서 支出되는 消費需要는, B_t 에서 나오지 않고 B_{t-1} 에서 나온다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t 時點에 있어, 市場에 陳列되고 있는 X_{1t}, X_{2t} 는 生産業者가 都小賣業者로부터 받드시 現金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고, X_{1t}, X_{2t} 가 最終消費者에게 販賣된 然後에 生産業者가 都小賣業者로부터 그 販賣代金($U_t + A_t + B_t$)을 받을 것을 期待하고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信用去來).

그러므로 産業[生産者]利潤에서 支出되는 消費支出은 $C(B_{t-1})$ 에서 나온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앞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X_t 를 販賣함으로써 入金될 B_t 가 곧 X_{2t} 의 購買力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론 商業利潤에서 支出되는 消費需要도 例外없이 H_{t-1} 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C(A_{1t})$ 등이 A 등에서 支出되는 消費需要를 意味하고, $S(A_{1t})$ 등이 나머지 貯蓄을 意味한다면 다음의 여러 方程式들이 成立될 것이다.

$$C(A_{1t}) + S(A_{1t}) = A_{1t}$$

$$\begin{aligned}
 C(A_{2t}) + S(A_{2t}) &= A_{2t} \\
 C(B_{1t-1}) + S(B_{1t-1}) + B_{1t-1} - B_{1t-1} &= B_{1t} \\
 C(B_{2t-1}) + S(B_{2t-1}) + B_{2t} - B_{2t-1} &= B_{2t} \\
 C(Z_{1t}) + S(Z_{1t}) &= Z_{1t} \\
 C(Z_{2t}) + S(Z_{2t}) &= Z_{2t} \\
 C(H_{1t-1}) + S(H_{1t-1}) + H_{1t} - H_{1t-1} &= H_{1t} \\
 C(H_{2t-1}) + S(H_{2t-1}) + H_{2t} - H_{2t-1} &= H_{2t}
 \end{aligned}$$

以上 여러 方程式의 邊邊을 相加하면

$$\begin{aligned}
 \text{左邊} &= C(A_{1t}) + C(A_{2t}) + C(B_{1t-1}) + C(B_{2t-1}) + C(Z_{1t}) + C(Z_{2t}) + C(H_{1t-1}) + C(H_{2t-1}) \\
 &\quad + S(A_{1t}) + S(A_{2t}) + S(B_{1t-1}) + S(B_{2t-1}) + S(Z_{1t}) + S(Z_{2t}) + S(H_{1t-1}) + S(H_{2t-1}) \\
 &\quad + (B_{1t} - B_{1t-1}) + (B_{2t} - B_{2t-1}) + (H_{1t} - H_{1t-1}) + (H_{2t} - H_{2t-1}) \\
 &= C + S(A_t) + S(B_{t-1}) + S(Z_t) + S(H_{t-1}) + \Delta B
 \end{aligned}$$

$$[\text{但 } \Delta B = (B_{1t} - B_{1t-1}) + (B_{2t} - B_{2t-1}) + (H_{1t} - H_{1t-1}) + (H_{2t} - H_{2t-1})]$$

다음에 右邊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egin{aligned}
 \text{右邊} &= A_{1t} + B_{1t} + Z_{1t} + H_{1t} + A_{2t} + B_{2t} + Z_{2t} + H_{2t} = (X_{1t} - U_{1t}) + (X_{2t} - U_{2t}) \\
 &= X_{1t} - (U_{1t} + U_{2t}) + X_{2t}
 \end{aligned}$$

여기서 t 期の X_{1t} 에 대한 總需要[粗投資]를 D_t 라고 하면

$$D_t = U_{1t} + U_{2t} + I_t$$

가 된다. I_t 는 t 期에 있어서의 「新投資」를 意味한다. 그러면 右邊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右邊} = X_{1t} - D_t + I_t + X_{2t}$$

그러므로 다음 關係가 成立된다.

$$C_t + S(A_t) + S(B_{t-1}) + S(Z_t) + S(H_{t-1}) + \Delta B = X_{1t} - D_t + I_t + X_{2t}$$

$$\therefore X_{2t} - C_t = S(A_t) + S(B_{t-1}) + S(Z_t) + S(H_{t-1}) - I_t + \Delta B - (X_{1t} - D_t)$$

그런데 所謂 3 面等價의 法則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이 誘導된다.

$$X - U = A + B = C + S$$

$$X_1 + X_2 - U = C + S \quad (\because X = X_1 + X_2)$$

$$X_1 - C = S - (X_2 - U)$$

$$= S - I - (X_2 - U - I)$$

$$= S - I - (X_2 - D)$$

5. 그러면

$$X_{2t} - C_t = S(A_t) + S(B_{t-1}) + S(Z_t) + S(H_{t-1}) - I_t + \Delta B - (X_{1t} - D_t) \dots \dots (A)$$

란 表式은 무엇을 意味하는 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表式은 보는바와같이 消費資料의 需給狀況 $[X_{2t} - C_t]$ 을 表示하고 있으며, 또 生産手段의 需給狀況 $[X_{1t} - D_t]$ 도 表示하고 있다. 「케인즈」式의 貯蓄=投資의 均衡關係는 우리의 表式에서는

$$S(A_t) + S(B_{t-1}) + S(Z_t) + S(H_{t-1}) = I_t$$

로서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케인즈」의 命題대로 貯蓄=投資의 均衡關係가 成立된다 하더라도

$$X_{2t} - C_t = \Delta B - (X_{1t} - D_t)$$

와 같은 結果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면, 資本家가 利潤의 增加 $[\Delta B = B_t - B_{t-1} + H_t - H_{t-1}]$ 를 意圖(計劃)하는 限, 즉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資本蓄積)이 推進되는 限, 消費資料의 需給이 均衡을 취하면 $(X_{2t} - C_t = 0)$ 生産手段의 需給이 不均衡相을 나타내게 되고, 反對로 生産手段의 需給이 均衡을 취하면 $(X_{1t} - D_t = 0)$ 이번에는 消費資料의 需給이 不均衡相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消費資料의 需給과 生産手段의 需給이 同時에 均衡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마르크스」恐慌論에서 말하는 生産部門間 不均衡關係가 이 表式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케인즈」의 命題 貯蓄=投資의 均衡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도, 즉

$$S(A_t) + S(B_{t-1}) + S(Z_{t-1}) + S(H_{t-1}) > I_t$$

이 될 때에도, 위의 關係가 성립된다는 것은 自明의 理에 속한다. (7)

(A)表式의 右邊가운데 包含되어 있는 $X_{1t} - D_t$ (生産手段의 需給)의 項은 注文生産이 行해지고 있는 生産手段(機械·施設)의 需給 $X_{1t}' - D_t'$ 와 市場生産이 行해지고 있는 生産手段(原料·小機械)의 需給 $X_{1t}'' - D_t''$ 의 둘로 나눌 수 있다.

$$X_{1t} - D_t = (X_{1t}' - D_t') + (X_{1t}'' - D_t'')$$

(7)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 表式에 의하면 [I의 5 參照].

$$\begin{aligned} \text{貯蓄} &= (C_1' + V_1') + (C_2 + V_2') \\ \text{投資} &= C_1' + C_2' \end{aligned}$$

로서 의제

$$\text{貯蓄} > \text{投資}$$

가 된다. 但 「마르크스」의 理論에 있어서는 貯蓄은 利潤貯蓄만을 意味한다. 「마르크스」經濟學者 가운데에서 「마르크스」의 「資本의 形態變換」理論에 立脚해서 貯蓄=投資의 理論을 排擊한 사람은 「P. 스위지」이다. 『讀者는 資本家에 의한 蓄積(貯蓄)의 一部는 勞動者에 의해서 消費되고 一部는 追加의 生産手段에 投資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注意해 주기 바란다. 古典學派의 經濟學者들은 往往 모든 蓄積(貯蓄)이 消費된다고 假定한 誤謬를 犯했고, 近代經濟學者들은 모든 蓄積(貯蓄)은 投資된다고 假定함으로써 反對의 誤謬를 犯하고 있다.』[「스위지」의 前揭書, p. 181].

지금 $X_{1t}'' - D_{1t}''$ 를 左邊에 옮기고

$$(X_{2t} - C_t) + (X_{1t}'' - D_{1t}'') = X_{2t}' - C_t'$$

라고 表示하면, (A)式은

$$X_{2t}' - C_t' = S(A_t) + S(B_{t-1}) + S(Z_t) + S(H_{t-1}) - I + \Delta B - (X_{1t}' - D_{1t}') \dots (B)$$

가 된다. 이 (B)式이 意味하는 것은, 貯蓄이 投資와 均衡을 취하든 또는 그보다 크든간에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하는 生産手段(原料·小機械)의 供給은, 그 需要를 最少限 資本家가 意圖(計劃)하는 利潤의 增加額($\Delta B = B_t - B_{t-1} + M_t - M_{t-1}$)만큼 항상 超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家가 利潤의 增加를 意圖(計劃)하는 限, 즉 資本主義의 擴大再生産이 推進되는 限,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하는 生産手段의 供給은 需要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왜냐하면

$$X_{1t}' - D_{1t}' = 0$$

이라고 看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利潤率의 低下」가 恐慌의 原因이 된다는 「마르크스」恐慌論은 論破된다 [I의 4 參照]).

以上에서 우리는 資本主義體系內的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즉 資本蓄積自體가 어떻게 必然的으로 한편에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하는 生産手段의 供給過剩現象을 發生케 하느냐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反對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推進되지 않는다면 供給過剩現象도 必然化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의 (B)式이 뜻하는 核心的意味를 要約해 보면,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推進되는 限, 利潤增加額 ΔB 가 항상 正值를 취함으로써 供給過剩이 「必然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反對로 말하면, 資本主義的 單純再生産 또는 資本主義的 縮小再生産이 推進되면 ΔB 가 零值 또는 負值를 취함으로써 供給過剩이 「必然的」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B)式에서 即刻 理解될 수 있는 바와 같이, $S(A) + S(B) + S(Z) + S(H) + \Delta B$ 는 $X_{2t}' - C_t'$ 의 供給過剩의 「값」은 더 크게 만드는 作用을 하게 되므로 $S(A) + S(B) + S(Z) + S(H) + \Delta B$ 는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고, 新投資 I 와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하는 生産手段 X_{2t}' 그리고 注文에 應하는 生産手段 X_{1t}' 의 對外輸出은 모두가 供給過剩을 緩和하는 作用을 하게 되므로 이들 要因은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8) 그러나 新投資는 今期(t 期)

(8) 우리의 表式은 消費資料의 供給過剩을 內容으로 하는 「룩셈부르크」의 命題와 『生産手段에 의해서 國內市場이 擴大된다』는 「레닌」의 命題를 條件附로 肯定하는 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룩셈부르크」, 「레닌」의 命題는 그 理論展開方式은 옳지 않았지만 그들의 現實感覺은 옳았다는 말이 된다. [I의 7 參照]

에 있어서는, 購買力效果를發揮함으로써 供給過剩을緩和하는 要因이 되지만, 次期($t+1$ 期)에 있어서는 生産力效果를發揮함으로써 利潤增加額 ΔB 를造成하는 原因이 되므로, 次期에 있어서는「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 된다는 二重的 性格을 갖는다. 이러한 投資의 二重的 性格이「도마」의 所謂「投資의 二重性」과 一致된다는 것은 쉽게 理解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理論의 特異性을 闡明해두기 위해서, 우리의 理論과「왈라스」式需給均等の 理論과의 差異點을 明白히 해둘 必要를 느낀다. 「왈라스」式需給均等の 理論 [이것은 近代經濟學에서 基礎理論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에 있어서는, 供給過剩은 [短期・完全競爭下에서는] 價格下落의 現象을 招來함으로써 即刻「供給減少→均等」의 運動을 誘發하게끔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왈라스」式需給均等の 理論에 있어서는 供給過剩은 하등「必然的」인 것이 아니며, 一時的・偶然的・試行錯誤的인 것에 不過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理論에 의하면, 「供給過剩→價格下落→供給減少・需要增加→需給均等」의 運動 즉 「不均衡→均衡」의 運動은, 그와 같이 即刻 無條件的으로 反射的으로 즉 直接的・無媒介的으로 惹起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供給過剩 즉「不均衡」은 資本主義의 擴大再生産의 不可避의 表現이며, 利潤極大化란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의 必然的인 現象形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해서, 需給一致 즉「均衡」은 資本主義의 單純再生産 또는 資本主義의 縮小再生産의 端的인 表現이며 따라서 그것은 利潤極大化란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에 違背되는 現象形態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資本家の 生産者兼販賣者는 限死코 擴大再生産을 推進하려고 하며, 또 限死코 供給過剩을 市場을 開拓해서 販賣促進을 企圖하려고 하되 絶對로 價格을 引下시켜 販賣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想定하는 것이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利潤極大化)에 符合되는 올바른 推論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生産에 特有한 供給過剩 즉「不均衡」즉「矛盾」은, 나름아닌 바로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利潤極大化)의 「必然的」所産이란 것, 그리고 또 「不均衡」의 解決 즉 市場開拓도 그 「必然的」要請이란 것을 意味하게 될 줄 안다.

그러나 必死的인 新市場開拓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供給過剩이 完全히 解消될 展望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資本家の 生産者兼販賣者는 (1) 價格引下를 斷行하여 完全販賣를 促求하든가, 또는 (2) 供給過剩을 製品在庫로 돌려 將來에 있어서의 販賣에 希望을 걸든가 하는 두 가지 方途中 하나를 擇하는 것 以外에는 다른 길이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方途中 하나를 選擇하는데 있어서도, 資本家の 生産者兼販賣者는 (1)이 아니고 (2)를 擇한

다고 想定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1)은 極大利潤實現의 完全한 拋棄를 意味하는데 대하여, (2)는 그래도 將來에 있어서의 極大利潤實現의 「可能性」을 그 속에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資本의 回轉期間은 약간 길어지지만]. 물론 그 可能性이 客觀的인 實現可能性에 관한 事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將來에 대한 主觀的인 Speculation이 自信과 樂觀主義의 方向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을 나타낼 때는, 그 客觀的 實現可能性은 「主觀的 實現可能意識」의 形態로 變貌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主觀的 實現可能意識」이 維持되는 동안은, 즉 意慾과 樂觀主義와 自信이 유지되는 동안은, 「不均衡」(在庫)은 점점 累積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不均衡이 累積되어 가는 過程에 있어서도 製品在庫의 壓力에 눌려 약간 生産이 減少되고 또 약간의 價格下落現象이 發生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은 출기차게 推進되고 있다고 看做하여 무방하다.

그러나 「不均衡」(在庫)의 累積이 어느 限界線을 넘게 됨으로써, 資本家の 「主觀的 實現可能意識」이 「主觀的 實現不可能意識」으로 바뀌어지는 突然한 變遷을 가져오게 하면, 그 瞬間이야말로 恐慌이 爆發되는 瞬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資本家が 품어왔던 無制限의 樂觀主義·期待·自信은 瞬息間에 悲觀主義·疑惑·不安·絕望·諦念 등과 交替되고, 資本家は 利潤極大化(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를 拋棄하고 擴大再生産을 中止하게 되며, 生産減少·價格引下를 통해서 實際需要의 크기에게까지 在庫를 包含한 全供給을 最短時日內에 調整하려고 悲痛한 絕望的인 努力을 나하게 된다. 이 現象이 곧 恐慌인데, 恐慌을 통해서 여태까지 累積된 不均衡은 解消되고 또 均衡의 恢復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注意해야 할 點은 均衡의 恢復은 「需要의 供給에의 接近」을 통해서가 아니라 「供給의 需要에의 接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事實이다.

資本主義的 縮小再生産의 過程에서는,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인 利潤極大化가 作用하지 않고, 需給均等の 法則만이 作用한다. 換言하면,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의 過程에서는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인 利潤極大化가 需給均等の 法則을 抑制하고 있지만, 資本主義的 縮小再生産의 過程에서는 反對로 需給均等の 法則이 利潤極大化法則을 抑制하고 있다는 命題가 成立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理論에 의하면, 「均衡」은 「왈라스」式 需給均等の 理論에 있어서와 같이 直接的·無媒介的으로(unmittelbar) 또는 無抵抗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資本主義의 基本的經濟法則(利潤極大化)의 必然的 所産인 「不均衡」의 徹底한 反抗을 받으면서, 그에 의해서 峻烈하게 媒介됨으로써(vermittelt) 凄慘한 破壞와 流血劇을 演出하면서, 最

後的 發惡을 받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市場을 目標로 한 消費資料 및 生産手段의 生産部門에서 恐慌이 어떻게 必然的으로 發生되느냐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또 部分的 恐慌現象이 아니고 全般的 恐慌現象이란 것도 쉽게 理解될 수 있을 줄 안다. 이리하여 恐慌의 必然性和 一般性은 「證明」 되었다.

6. 「不均衡의 累積」 또는 「矛盾의 累積」이 어떻게 恐慌形態로 爆發되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具體的으로 그 過程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우리는 위에서 X_2' 의 對外輸出은 「供給過剩의 緩和的要因」이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市場을 目標로 한 消費資料 및 生産手段의 輸入이 「供給過剩의 促進的要因」이 된다는 것은 自明의 事實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輸入額만큼의 供給이 國內供給에 追加되기 때문이다. 지금 t 期에 있어서의 X_2' 의 輸出額을 E_t , 市場을 目標로 한 消費資料 및 生産手段의 輸入額을 M_t 라고 한다면, $(E - M)_t$ 는 t 期에 있어서의 「供給過剩의 緩和的要因」을 形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t 期에 있어서의 供給過剩은 $(X_2' + M)_t - (C' + E)_t = (X_2' + M - C' - E)_t$ 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t 期에 있어서는 $(X_2' + M - C' - E)_t$ 만큼의 製品在庫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또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한 生産手段의 生産部門에 있어서 回收(入金)되는 貨幣資本은 X_2' 가 아니고 $(C' + E)_t$ 가 된다. 이리하여 $t+1$ 期の 期初의 投下貨幣資本은 $C' + E$ 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供給過剩은 또 $t+1$ 期の 期末에 있어서도 發生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t+1$ 期에 있어서는, $(X_2' + M - C' - E)_{t+1}$ 만큼의 供給過剩에다가 前 t 期の 供給過剩 $(X_2' + M - C' - E)_t$ 이 追加된다는 事實을 또한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t+n$ 期에 있어서의 總供給은

$$\sum_{i=0}^{n-1} (X_2' + M - C' - E)_{t+i} + (X_2' + M)_{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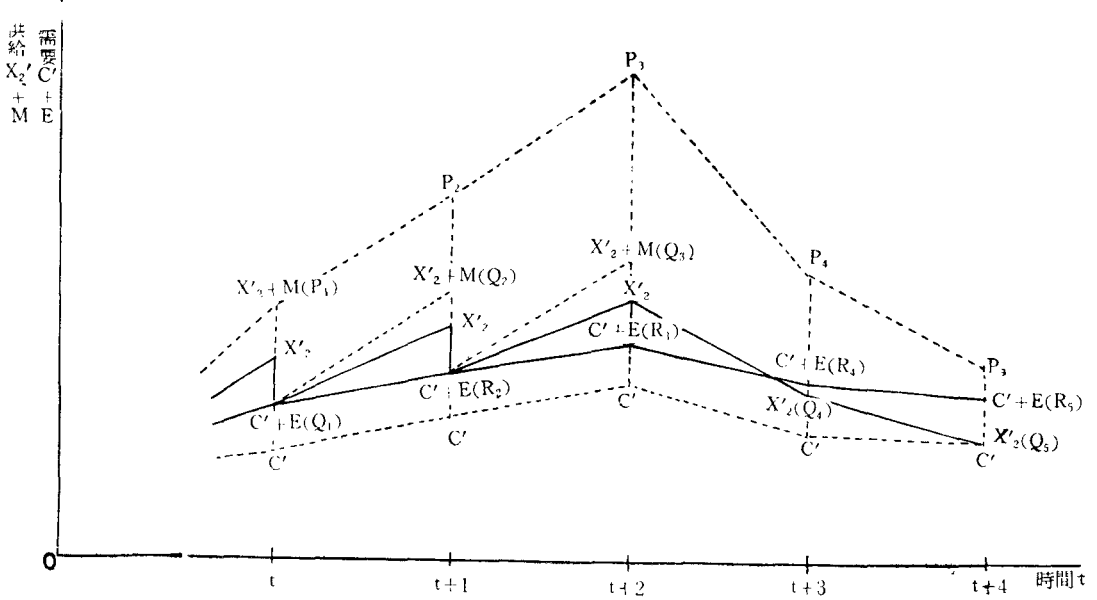
가 되며, 한편 需要는 $(C' + E)_{t+n}$ 가 되고 總供給過剩은

$$\sum_{i=0}^n (X_2' + M - C' - E)_{t+i} \quad (C)$$

가 된다.

이 經過를 그림으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t 期에 있어서의 供給過剩은 P_1Q_1 이고 그것이 $P_2Q_2 (= P_1Q_1)$ 로써 $t+1$ 期の 供給過剩 Q_2R_2 에 追加됨으로써 $t+1$ 期の 總供給過剩은 P_2R_2 가 된다. 마찬가지로 $t+1$ 期에 있어서의 總供給過剩은 $P_3Q_3 (= P_2R_2)$ 로써 $t+2$ 期の 供給過剩 Q_3R_3 에 追加됨으로써 $t+2$ 期の 總供



給過剩은 P_3R_3 가 된다.

다음에 恐慌을 說明해 보면, 만약 $t+n$ 期에 있어서 恐慌이 發生되었다고 하면 $t+n$ 期를 境界線으로 해서 總供給過剩이 累積으로부터 減少의 方向으로 轉換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고 할 수 있다.

$$\sum_{i=0}^{n-2} (X_2' + M - C' - E)_{t+i} < \sum_{i=0}^{n-1} (X_2' + M - C' - E)_{t+i} < \sum_{i=0}^n (X_2' + M - C' - E)_{t+i} >$$

$$\sum_{i=0}^{n+1} (X_2' - C' - E)_{t+i} > \sum_{i=1}^{n+2} (X_2' - C' - E)_{t+i}$$

물론 이러한 關係가 (1) 價格下落 (2) 生産縮小 (3) 輸入禁止를 통해서 成立된다는 것은 說明할 必要도 없다.

이 現象을 그림에 의해서 表示하면, (前圖에서 $t+2$ 期에 있어서 恐慌이 發生되었다고 한다) P_3 는 P_4 로 急轉直下하게 되고 따라서 $t+2$ 期의 總供給過剩 P_3R_3 은 價格下落과 $t+3$ 期의 生産縮小로 因해서 顯著하게 縮小된 $t+3$ 期의 總供給過剩 P_4R_4 로 變貌하게 된다. ($M_{t+3}=0$)⁽⁹⁾

(9) 이와같이 恐慌은 $P_1 \rightarrow P_2 \rightarrow P_3 \rightarrow P_4$ 와 같은 stock 財貨를 包含한 總供給價格의 運動으로서 나타내지만, 資本의 擴大運動은 $Q_1 \rightarrow R_2 \rightarrow R_3 \rightarrow R_4$ 와 같은 軌跡을 그리고 나타낸다.

7. 그러면 恐慌의 週期性은 어떻게 證明될 것인가? 「마르크스」는 그것을 說明하기 위해서 「循環의 物質的 基礎로서의 固定資本의 回轉」이란 것을 내세웠지만 그 理論的 根據는 提示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固定資本의 壽命이 平均 10年이라는 事實과 19世紀 前半期の 恐慌의 循環期間이 대개 10年이었다는 事實의 偶然的 一致에서 그러한 理論을 誘導해 냈는데, 그것이 法則性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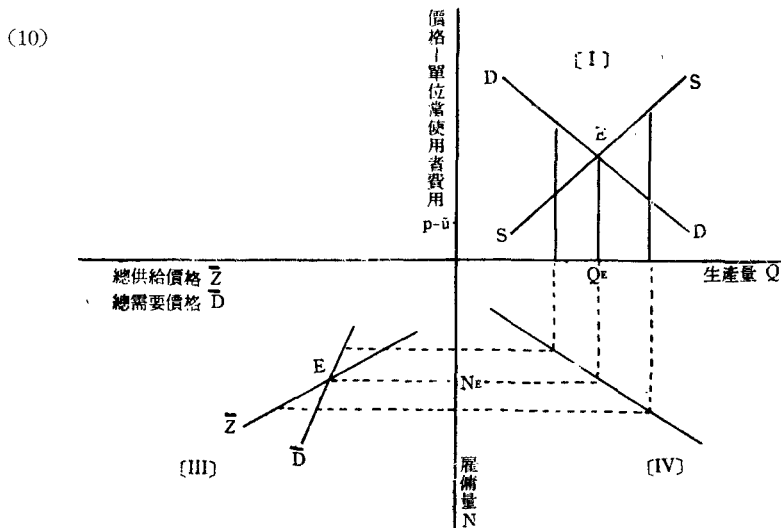
恐慌의 週期性을 說明하려고 할 때에는 그 循環期間이 漸次 短縮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도 아울러 解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19世紀 前半期에 있어서는 循環期間은 平均 11年이었고 [1825年, 36年, 47年], 19世紀 後半期에 있어서는 平均 8.5年이 되었고 [1857年, 66年, 73年, 82年, 90年, 1900年], 20世紀 前半期에 들어와서는 平均 7年이 되었으며 [1907年, 14年, 20年, 29年, 38年], 2次大戰後에 있어서는 그 期間이 4年 未滿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恐慌의 週期性을 다음과 같이 證明하고자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은 그 自體속에 스스로를 否定하는 不均衡要因을 內包하고 있는데 [供給過剩의 必然性], 그것은 時間이 經過되는 過程에서 累積되며, 드디어는 恐慌現象 [供給→需要]으로 現實化되고 만다. 이리하여 擴大再生産은 縮小再生産과 交替되지만, 縮小再生産은 오래 안가서 다음과 같은 理由로 또다시 擴大再生産과 交替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 (1) 生産縮小・價格下落으로 X_2' 는 急激히 C' 에 接近하게 된다. (2) 生産縮小・價格下落은 利潤額의 減少를 가져온다. 즉 ΔB 가 負値를 取하게 된다. 이것은 또 擴大再生産이 進行되던 期間에 있어서는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던 ΔB (正値)가 縮小再生産이 進行하게 되자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이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극히 重要한 事實이다. (3) 企業間競爭이 激甚하게 되므로 技術革新投資가 盛行되며 따라서 貯蓄은 大幅 投資로 돌려진다. 이것은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은 작아지고 반대로 「緩和的 要因」은 커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恐慌은 항상 一大新投資의 出發點이 된다』 [『資本論』第2卷 p. 180]. 이리하여 縮小再生産過程에서 $X_2' - C'$ 의 「갭」은 極小化된다. 그리고 이 縮小再生産이 進行되는 가운데 縮小再生産이 擴大再生産으로 轉換되는 基礎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累積된 不均衡」때문에 不得已 抑壓되고 歪曲되고 있던 利潤極大化法則은 縮小再生産이 進行됨으로써 「累積된 不均衡」이 解消되는 것을 契機로 또다시 作用하기 시작하여 本然的 擴大再生産을 推進하게 되기 때문이다. 結局 「累積된 矛盾」이 解消되는 瞬間 또다시 새로운 矛盾이 蓄積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消化不良때문에 節食한 것이 食慾을 돋우어 다시 飽食의

原因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以上 우리는 縮小再生産가운데 擴大再生産을 위한 條件이 準備되며, 마침내 그것이 現實化되는 過程을 살폈다. 이리하여 資本主義의 發展은 必然的으로 「擴大再生産→縮小再生産→擴大再生産」과 같은 波狀的 發展現象을 나타내게 되는데, 恐慌의 週期的 性格은 資本主義發展의 그러한 波狀的 形態로부터 쉽게 誘導될 수 있는 하나의 結論이다.

그러면 恐慌의 循環期間이 短縮化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우리의 거기에 대한 答은 다음과 같다. (1) 점점 커져가는 資本蓄積과 끊임없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은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 $S(A)+S(B)+S(Z)+S(H)+\Delta B$ 를 더욱 더 크게 만드는 作用을 하게 되었으며, (2) 또 하나는 海外市場開拓이 점점 困難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음 章에서 이것을 다시 取扱할 機會가 있을 줄 안다.

8. 이 章을 끝맺기 前에 우리는 또 우리의 再生産表式과 「케인즈」의 「有效需要的 原理」의 差異點을 明白히 해 둘 必要를 느낀다. 첫째로 指摘해야할 點은, 우리의 擴大再生産表式은 貯蓄이 投資보다 크든 또는 같은간에 消費資料의 需給이 均衡을 취할 때는 生産手段의 需給이 不均衡相을 나타내게 되고 反對로 生産手段의 需給이 均衡을 취할 때는 消費資料의 需給이 不均衡相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總供給과 總需要가 一致될 수 없다는 「不均衡理論」인데 대해서, 「케인즈」의 「有效需要的 原理」는, 消費資料의 需給도 均衡을 취하고 生産手段의 需給도 均衡을 취함으로써 總供給과 總需要가 一致된다는 「均衡理論」의 構成을 갖고 있다는 事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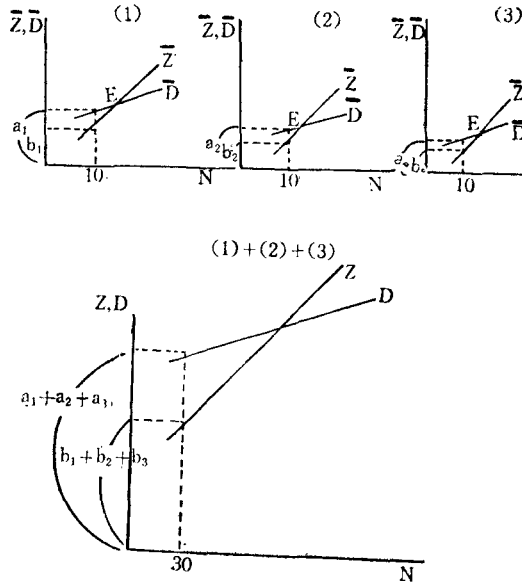


第 1 圖

이다. 흔히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는 「말더스」의 理論에서 緣由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 「말더스」의 理論은 「支配勞動量說→不等價交換의 理論→需給均等的 理論」의 體系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는 完全無缺하게 「마셜」式 需給均等的 理論의 基礎위에 構成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再生産表式에 의한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의 理論的 克服은 당연 우리의 再生産表式에 의한 「마셜」의 需給均等的 理論의 理論的 克服도 意味한다는 것 할 것도 없다. 둘째, 우리의 擴大再生産表式을 「不均衡理論」으로 만드는 決定的 要因 潤增加額 ΔB 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곧 利潤極大化法則과 差름없다. 「케인즈」의

第1圖의 第1象限은 一産業에 있어서의 「마셜」式 需給均等的 理論을 表示한다. 但 縱軸은 價格에서 單位當「使用者費用」 \bar{u} 를 控除한것 $p-\bar{u}$ 를 表示하고 또 SS 는 短期供給曲線을 表示한다. 이것은 消費財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資本財의 경우에도 適用된다. 資本財의 경우에서 그 需要價格과 그 供給價格이 一致되는 點이 資本의 限界效率과 利率이 一致點이고 그 點에서 投資水準도 決定된다. 第4象限의 曲線은 生産量과 雇傭量의 關係를 示하는 曲線이다. 第3象限은 雇傭量과 一産業에 있어서의 總供給價格 Z 과 總需要價格 D 를 表示한다.

- 但 總供給價格 = (供給價格 - 單位當使用者費用) × 生産量
- 總需要價格 = (需要價格 - 單位當使用者費用) × 生産量



第 2 圖

第2圖의 (1) (2) (3)은 個別産業에 있어서의 雇傭量과 總供給價格 Z ·總需要價格 D 와 關係를 表示하고, (1)+(2)+(3)은 全體産業에서 集計한 雇傭量과 總供給價格 Z ·總需要價格 D 와의 關係를 表示한 것으로서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를 나타낸다.

需要의 原理」를 「均衡理論」으로 만드는 決定的 要因도 利潤極大化法則이다. 「케인즈」의 理論에 있어서는 利潤極大化가 實現됨으로써 到達되는 點이 바로 需給一致의 均衡點인데 反하여, 우리의 理論에 있어서는 利潤極大化를 目標로 하여 利潤額의 增加(ΔB)를 意圖(計畫)하면 할수록 需給의 不均衡은 擴大되어 가고 利潤의 實現은 점점 더 困難해지며 一般의 供給過剩도 累積되어 간다는 構成이 되어있다. 흔히들 「케인즈」의 經濟學을 「不況의 經濟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 以上에서 본바에 의해서 利潤極大化가 實現될 수 있고 그 利潤極大化가 實現되는 點에서 需給이 一致된다는 「有効需要의 原理」는 결코 「不況經濟學」이라고는 할 수 없을 줄 생각한다. 「不況의 經濟學」이라고 하면, 最少限 「供給過剩→失業發生」의 經路를 解明해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有効需要의 原理」는 供給過剩의 必然性·一般性을 전혀 說明하지 못하고, 도리어 需給均衡의 點에서 失業發生의 經由를 明하려고 한 것은 [但 「不完全雇傭」의 立場에 立脚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不況經濟學」으로서 履行해야 할 最少限의 理論的 課業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셋째로 「케인즈」의 「有効需要의 原理」로부터는 必然的으로 投資=貯蓄의 衡이 成立되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再生産表式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必然的인 均衡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은 前節 5에서 본 바와 같다. 現實적으로 볼 때는 전혀 意義가 없면서도 理論面에서 그다지도 많은 精力과 時間을 虛費시킨 論爭거리로서 投資=貯蓄과 是 命題는 일찌기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 넷째로는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 景氣循環論에 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겠다.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的 景氣循環論 「케인즈」의 「有効需要의 原理」를 「共通의 理論의 出發點」으로 삼고 있는 點에서 「共通誤謬」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筆者의 그에 대한 見解의 全部이다. 「共通의 誤謬」 가운데서 가장 致命的인 것을 하나 들면, 「케인즈」以後의 近代經濟學的 景氣循環論의 거의 모두가 必然的·一般의 供給過剩을 說明하지 못하고 있으며 經濟活動을 「均衡」所得의 變動으로서만 把握하려고 하고 있다는 事實이 바로 그것이다. 「해로드」의 所謂 Antinomy Theorem에 있어서도, 不均衡은 現實投資와 必要投資와의 사이에서만 成立되는 말하자면 하나 心理的現象이 되고 있으며, 現實投資와 現實貯蓄은 항상 均衡을 이룸으로써 現實적으로 不均衡은 나타나지 않게끔 되어 있다. 그리하여 恐慌(=景氣下降)은 「均衡」所得의 上昇變動이 完全雇傭의 壁에 부딪친 뒤에 惹起되는 「均衡」所得의 下降的變動이라고 되어 있다[「해로드」 「릭스」].

III. Market Widening과 Market Deepening

1. 이번에는 우리가 以上에서 얻은 理論的 結論을 現實面에 適用시켜 그 實用性與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루딩」은 먹어 보아야 그 眞味를 알 수 있고 理論은 現實에 시켜 보아야 그 眞價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의 好簡의가 주어져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스턴버그」의 『試鍊途上에 있는 資本主義와 社會』(Sternberg, *Capitalism and Socialism on Trial*, 1951)란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中의 資本主義恐慌史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스턴버그」의 著書는 「R. 록셈부르크」의 『資本蓄積論』과 內容上에 있어서 同一系統에 속한다고 著者自身이 말하고 있다.]

「스턴버그」에 의하면 『19世紀 後半期에 있어서의 恐慌은 하나의 共通點을 갖고 그것은 이 모든 恐慌은 比較的 短期間의 中斷(comparatively short interruptions)이었고 資本主義는 一貫해서 強力하게 前進하고 있었다』[p. 71]는 것이며, 그 原因으로서 버그」는 「유럽」資本主義는 「對外的 擴大運動」(outward expansion) [또는 「帝國主義大運動」(imperialist expansion) 또는 「植民地獲得運動」(colonialism)]에, 그리고 「아메리카」資本主義는 「對內的 擴大運動」(internal expansion)에 각각 依支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對外的 擴大運動」이란 海外에서 「非資本主義的 市場」을 獲得하는 것을 말하고, 「對內的 擴大運動」이란 國內에서 「非資本主義的 市場」을 開拓하는 것을 말한다. 「스턴버그」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擴大運動」(capitalist expansion)에는 두가지 類型이 있다. 하나는 政治的 主權을 保持하는 後進國 [이를테면 19世紀中葉에 있어서의 英國에 대한 獨逸]의 「資本主義的 市場」[「록셈부르크」의 所謂 「內部市場」]에 先進國[이를테면 19世紀 中葉에 있어서의 英國]의 工業商品이 浸透해 들어가는 類型이고, 또 하나는 「主權을 完全히 保持하지 못하는 植民地・半植民地 [이를테면 19世紀 中葉에 있어서의 印度, 中國]의 「非資本主義的 市場」[「록셈부르크」의 所謂 「外部市場」]에 先進國[이를테면 19世紀 中葉에 있어서의 英國]의 工業商品이 浸透해 들어가는 類型이다. 그런데 「스턴버그」에 의하면 第一 類型의 「資本主義的 擴大運動」도 「巨大한 進展」을 이룩하였으나 資本主義發展에 決定的 役割을 한 것은 第二 類型의 「資本主義的 擴大運動」이었다는 것이다 [pp. 36—7]. 그리고 「스턴버그」에 의하면 「유럽」資本主義는 各其 國內에 開拓할 만한 非資本主義的 購買力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불 海外市場[植民地]을 獲得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메리카」資本主義는 國內에 龐大한 非資本主義的 購買力[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을 包含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海外市場開拓(植民地獲得)의 必要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植民地의 非資本主義的 購買力을 蝕아먹는 「對外的 擴大運動」[帝國主義的 擴大運動]과 「對內的 擴大運動」 덕분에, 그리고 「植民地의 貧困化」(colonial impoverishment) [p. 30]의 犧牲위에서 「스턴버그」는 「帝國主義的 擴大運動」은 植民地・半植民地의

위에서 推進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¹⁾, 1850—1914 年 사이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資本主義는 人類史上 類例없는 急「템포」의 發展速度를 보일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狀況을 「스턴버그」는 生産·貿易·所得·賃金等 各方面에서 詳細하게 陳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턴버그」에 의하면, 「유럽」資本主義의 「對外的 擴大運動」은 또 國內市場도 擴大시키는 結果도 가져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유럽」資本主義의 「對外的 擴大運動」은 『利潤과 雇傭과 勞賃을 同時에 增大시킴으로써 國內市場도 顯著히 擴大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市場의 二重的 擴大(double increase of markets) 즉 輸出市場의 擴大와 國內市場의 擴大야말로 當時의 恐慌에 前無後無한 性格을 賦與한 決定的 要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p. 71]. 그 恐慌의 「前無後無한 性格」이 「比較的 短期間의 中斷」을 가리킨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스턴버그」의 見解를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X_2' - C'$ 의 「갭」은 X_2' 의 輸出增大에 의한 國內에 대한 供給量[額]의 減少와 國內市場의 擴大에 의한 C' 의 增大로써 二重으로 縮小되었다고.

이 밖에 19世紀後半期の 恐慌을 「比較的 短期間의 中斷」으로서 그치게 한 다른 理由로서, 「스턴버그」는 指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說明하면 그때는 資本主義發展의 初期였던만큼 資本蓄積도 크지 않았고 또 生産性도 높지 않았으므로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과, 또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이 컸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市場의 二重的 擴大」에 基因한 需要增加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巨大한 投資가 要求되던 時代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 크지 않았던 貯蓄 S 는 전부 投資 I 로 돌려질 수 있었다. 특히 英國은 「유럽」에 資本輸出까지 했는데, 이것은 英國에 있어서의 貯蓄을 外國에 貸付하여 그것을 英國製의 生産手段 X_1' X_2' 에 대한 購買力으로 돌려 X_1' X_2' 의 輸出의 增加를 꾀함으로써 $X_2' - C'$ 의 「갭」을 極小化하는 作用을 하게 되었다. 『「유럽」大陸의 鐵道網의 大部分이 단지 英國의 鐵鋼에 의해서 建設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英國의 資本投下에 의해서 大規模로 調達되었었다』[p. 36]. 이리하여 19世紀後半期는 $X_2' - C'$ 의 「갭」을 最小限度로 縮小시킬 수 있었던 時代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이 期間에 있어서는 恐慌의 幅은 짧았고 그 循環期間은 길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可能하게 한 것이 「유럽」資本主義의 경우에 있어서는 「對外的 擴大運動」, 「아메리카」資本主義의 경우에 있어서는 「對內的 擴大運動」이었다는 것은 「스턴버그」가 指摘

(11) 植民地의 市場化·貧困化는, (1) 資本主義母國과 植民地 사이의 半收奪에 가까운 激甚한 不等價交換[植民地의 農作物을 廉價로 사고 資本主義母國의 工業製品은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 (2) 植民地金融[土地를 擔保로 植民地人에게 融資] (3) 土地所有移轉의 3段階를 거쳐 推進되었다.

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 當時「유럽」諸國間에는 높은 關稅障壁이 쌓여있었고 國內市場閉鎖政策이 取해지고 있었다. 『서로 有力한 市場이어야 할 隣接國사이에 貿易去來가 없었다. 「유럽」市場은 끊임없이 增大해가는 英國製品을 吸收할 立場 있지 않았다. 英國工業에 남겨진 余積 하나의 길은 英領植民地와 「유럽」이외의 여에서 市場을 開拓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T. 바라노프스키」, 「스틴버그」의 前掲書

2. 그런데 이와같이 「유럽」資本主義와 「아메리카」資本主義를 飛躍的으로 發展的 對外的 擴大運動과 「對內的 擴大運動」도 1次大戰을 前後하여 둘 다 停止되고 말았단 스테인버그는 말하고 있다. 즉, 『世界資本主義의 中心이 커졌기 때문에 1次大戰前의 義的 擴大運動에 의해서 얻었던 만큼의 成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擴必要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大規模의인 擴大運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p. 216] 다. 그리고 1次大戰이야말로 [2次大戰도], 『帝國主義的 擴大運動이 招來한 戰爭』 이었고, 더 獲得할 非資本主義的 購買力이 消盡한 環境 가운데서 다른 資本主義를 하고 있는 植民地를 強奪所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戰爭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5

1次大戰後에 「對外的 擴大運動」이 停止되었다는 事實은 世界 貿易量의 停滯相을 우선 確認할 수 있다. 즉 1913年을 100으로 하여 1867—80年의 世界貿易量은 3 안되던 것이 1890—1900年에는 55.6으로 增大되고 있다. 이와같이 1900—13年 世界貿易은 約 2倍로 늘고 있는데, 1次大戰後 2次大戰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柱表와 같은 不振相을 나타내고 있다[p. 215].

世界貿易量 (1913年=100)

年 度	全 量	工場製品	第1次産
1921—25	82.3	76.6	8
1926—30	110.1	103.4	11
1931—35	95.4	73.5	10
1936—38	107.4	92.2	11

『그리하여 1次大戰과 2次大戰의 中間期間은 停滯와 不況과 恐慌의 時期가 되었다.』[同上]. 이것을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說明하면 어떻게 될까? 輸出不振은 國內에 대한 供給量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데다가 또 資本蓄積量은 어지간히 커서 生産性도 相當한 水準으로 높아져 있었으므로, 所得貯蓄도 增大되어 있었으리란 게 理解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對外的 擴大運動」의 停止로 인해서 投資機會는 減退되고 있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供給過剩의 促進의 要因」은 커졌지만 要因」은 작아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1929—33年의 大恐慌의 넓은 폭과 깊은 屈

에 基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스턴버그」의 所謂「對外的 擴大運動」(帝國主義)과 「對內的 擴大運動」을 Market Widening 이란 말로써 表現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非資本主義의 地域의 「外延的」擴大에 의한 非資本主義的 購買力의 「外延的」增加를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턴버그」가 「유럽」資本主義의 「對外的 擴大運動」과 「아메리카」資本主義의 「對內的 擴大運動」이 停止되었다고 말한 것은, 非資本主義地域의 擴大(植民地獲得)와 거기따르는 非資本主義的 購買力의 增加가 不可能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하여 Market Widening 이 그 限界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Market Widening 의 停止는 『世界資本主義 全體에 새로운 事態를, 史上 그와 비길 수 없는 事態를 發生케 했으니, 그것은 資本主義史上 처음으로 資本主義가 自體의 힘으로써 恐慌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이다』[p. 326]. 그리고 Market Widening 이 이미 不可能하게 된 環境속에서 여전히 이를 追求한 結果는 國際적으로는 關稅戰爭·金本位停止·輸入制限·換「덤핑」등 여러 現象을 惹起케 했고, 國內으로는 階級鬭爭을 尖銳化하고 또 無數의 失業者群을 發生케 함으로써 資本主義發生 이래 最大의 危機를 造成해 놓고 말았다.

그러나 1933年 「런던」會議가 失敗로 돌아간 後 世界資本主義는 Market Widening 의 殘滓라고 볼 수 있는 「블록」經濟와 이른바 Spending Policy (國內購買力造出政策)를 deus ex machina(救濟神)으로 모시는 經濟體制가 並存하는 二元的 體制로 落着되게 되었다. 이 Spending Policy 의 出現으로 資本主義는 새로운 局面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Spending Policy 는 (1) $X_2' - C'$ 의 「罅」를 恐慌[供給의 需要에의 接近]과 反對方向으로, 즉 「需要의 供給에의 接近」을 통해서 좁히는 方法의 發見과, (2) 「資本主義體系內에서」 購買力 增加를 가져오게 하는 Market Deepening 政策의 始初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1934年 以後 美國에서 實施된 所謂 「뉴 딜」政策과 獨逸「나치」政權에 의해서 敢行된 「平時下戰爭經濟」(peace-time war economy)는 바로 그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없었다. 이것은 곧 우리의 表式에서 $S(A) + S(B) + S(Z) + S(H)$ 를 政府의 손을 거쳐 投資 I 로 그리고 消費 C' 로 돌리되, 消費資料 및 市場을 目標로 한 生産手段의 供給을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生産手段에 대한 需要를 卮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이 美國의 경우와 같이 土木事業, 建築등 「公共投資」의 形態로 나타나도 可하고, 또는 獨逸의 경우와 같이 兵器生産의 形態로 나타나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Spending Policy 의 罅는 다음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1) 그것은 「供給없는 購買力」(Demand without Supply)의 撒布를 意味하며, (2) 그러한 購買力의

造出을 위해서는 「國家의 介入」(state intervention)이 不可避하다는 것이고, (3) 累進稅率을 適用하여 過剩貯蓄을 全部 國家로 吸收해 들어 [實際로는 不可能하지만] 그것을 投資로 또는 消費로 돌린다는 意味에서 그것은 곧 再分配政策[利潤의 一部→國家→勞動者]을 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pending Policy 는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과 「緩和的 要因」을 供給을 가져오지 않게 하면서 國家의 손을 빌어 相殺하는 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1930年代에 들어서서 資本主義는 Market Widening 외에 Market Deepening 이란 또 하나의 延命策을 發見해 넘으로써 「自體의 힘으로써 恐慌을 克服하는」有力한 可能性을 確保하는데 成功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이러한 資本主義의 새로운 局面을 「修正 資本主義」라고 表現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說明한 바에 의해서 그것이 결코 資本主義의 「修正」이 아니고 바로 그 「貫徹」이란 것은 쉽게 理解될 수 있을 줄 안다.

3. 그러나 2次大戰前에 있어서는 Market Deepening 은 成功的으로 推進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當時는 아직도 「經濟的 國民主義」에 立脚한 Market Widening 이 支配的이던 時代였던 만큼 Market Deepening 도 國民主義를 벗어나지 못했고, 獨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露骨的인 Market Widening 의 手段의 役割 밖에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치」獨逸의 「平時下戰爭經濟」는 애초부터 原料와 市場의 強奪을 노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Market Deepening 이 成功的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것은 2次大戰後의 일이다.

2次大戰後 周知하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世界市場은 中國과 東「유럽」을 喪失함으로써 面積上 적지않은 縮小를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놓고 할 수 있었다. 『世界市場의 惡化로 인하여 이들 여러나라[主要 資本主義諸國]의 企業은 操業 短縮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 , 資本主義諸國間의 市場爭奪戰爭과 自己의 相對者를 打倒하려는 이들 諸國間의 欲望은 資本主義陣營과 社會主義陣營과의 사이의 矛盾보

1955—57 年의 世界生産 및 世界貿易

	1928年=100		1945年=100	
	生 産	輸 出	生 産	輸 入
總 計	204	155	144	176
工 業 品	246	203	158	195
1 次 生 産 物	155	132	127	144

資料 : U.N., World Economic Survey, 1959.

(12) 恐慌克服政策인 Spending Policy 의 理論的 「백본」의 役割을, 恐慌의 必然性을 相殺해버린 「케인즈」의 「有效需要的 原理」가 擔當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可笑로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點에서 우리는 歷史上에 나타난 「理性的 狡智」를 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다도 훨씬 深刻하게 되었다』[『蘇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的 諸問題』日譯 國民文庫版 pp. 44-45]. 그러나 實際로는 資本主義世界의 生産力은 戰後 急激한 「템포」로 上昇했고, 또 世界貿易量도 顯著히 增加되었다[上表 參照]. 그리고 先進資本主義國 相互間에는 「相對方을 打倒하려는 欲望」보다 相互協調精神이 醸成됨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現象을 가져오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Market Deepening 政策이 그러한 成果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1次大戰前까지는 世界에서 相當한 面積을 차지하고 있던 非資本主義地域[植民地]은 先進資本主義國의 다시없는, 好餌로서 그들의 利潤의 實質的 負擔者 노릇을 해왔으며, 또 先進工業國은 그들대로 非資本主義的 地域의 工業化를 極力 沮止해 왔던 것이지만, 2次大戰後에는 植民地의 政治的 獨立으로 인해서 이러한 狀態의 繼續 維持는 不可能하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Market Widening 또는 帝國主義는 2次大戰을 契機로 그 姿態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신 登場한 것이 Market Deepening 인데, 2次大戰後의 Market Deepening 政策의 하나의 顯著한 特色은 舊時代의 經濟的 國民主義를 完全히 一擲해 버렸다는 바로 그 事實이다. 이리하여 Market Deepening 은, 先進資本主義國 內部에서 뿐만 아니라 先進資本主義國相互間에서도 強力하게 推進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列擧해보면 國內政策으로서는 (1) 自動安定裝置(Built-in Stabilizer), (2) 技術革新投資 (3) 消費革命을, 그리고 國家間政策으로서는 (1) 貿易自由化, (2) 後進國開發등을 들 수 있다.⁽¹³⁾

自動安定裝置란 過剩貯蓄 $S(A)+S(B)+S(Z)+S(H)$ 즉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을 國家의 손을 빌어 「自動的으로」 「緩和的 要因」인 投資 I 그리고 消費 C' 로 돌리는 「메카니즘」을 말하며, 社會保障制度 · 農產物價格支持制度 · 累進所得課稅制度 · 源泉所得徵收制度 등이 그 에 속한다. 이것은 「供給없는 購買力」을 造出하는 自動的 機構이므로, 「自動的 Spending Policy」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貿易自由化에 對備하기 위한 「코스트 다운」, 生産性向上 競争은 各國에 技術革新投資 「붐」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結果的으로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을 「緩和的 要因」으로 바꾸어 놓는 作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自動安定裝置와는 달라 「供給있는 購買力」(Demand with Supply)의 造出作用을 하게 되므로, 한편에서

(13) 本文에서는 言及하지 않았지만, 2次大戰後에 Market Widening 이 Market Deepening 으로 移行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前提가 必要하였었다. 그 前提란, 다름아닌 先進資本主義國의 産業構造의 高度化(重化學工業化)를 가리킨다. 2次大戰이 끝났을 때, 先進資本主義國의 産業構造는 完全히 重化學工業化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이 事實이 Market Widening 의 Market Deepening 으로의 移行을 圓滑히 하고 또 成功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이것도 극히 重要的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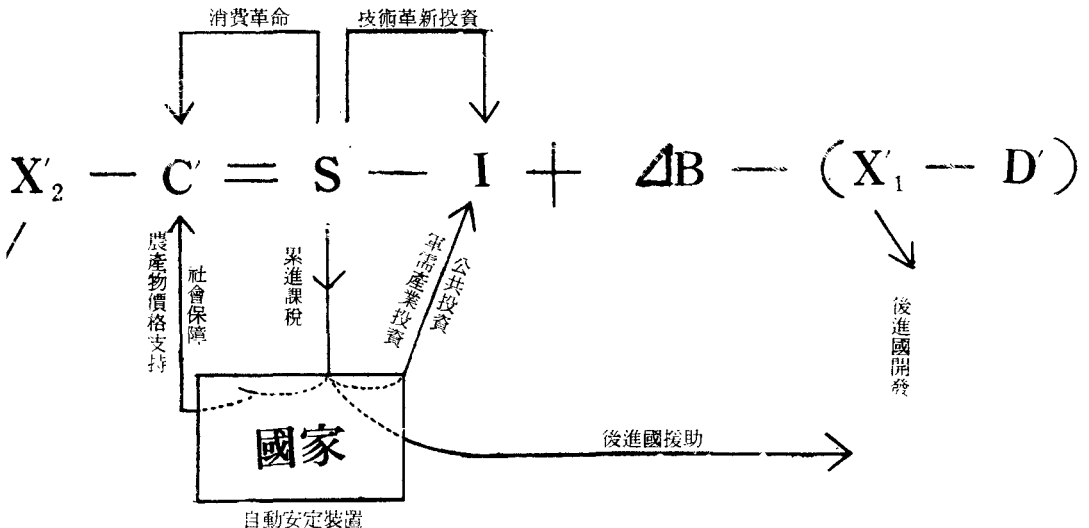
는 不均衡을 解消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不均衡을 助長하는 二律背反的 機能을 한다는 것은 이미 前章[II의 5]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 消費者信用 · 大量消費等 所謂 消費革命이, 貯蓄 $S(A)+S(B)+S(Z)+S(H)$ 을 消費 C' 로 돌리는 促進作用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2次大戰後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가장 劃期的인 事件은 뭐니뭐니해도 「유럽」의 先進資本主義國相互間에 貿易自由化가 推進되고 있다는 事實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것은 2次大戰後 完全히 끝을 맺은 Market Widening의 終結點에서 資本主義가 延命하기 위한 하나의 salto mortale [必死的인 飛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次大戰後 國際決濟問題에 가로놓인 許多한 難關과 隘路를 하나 하나 克服해 가면서 [IMF, EPU, EMA, 「유럽」諸國의 通貨의 交換性恢復等] 꾸준히 外換 · 貿易自由化를 推進하여 오늘의 「第3의 巨人」 EEC[歐洲共同市場]의 出現까지 보게 한 것은 참으로 20世紀後半期의 資本主義의 一大威力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새로운 事態는 1世紀前 「서로 有力한 市場이어야 할 隣接國 사이에는 거의 貿易去來가 없었고, 「英國工業에 남겨진 오직 하나의 길이 英領植民地와 「유럽」외의 市場을 開拓하는 것 밖에 없었던」 時代와 比較하여 보면 참으로 隔世의 感を 누를 수 없게 만들어 주고 있다[III의 1 參照]. 이로써 帝國主義는 歐洲統合에 의해서 完全히 止揚되었고, 資本主義는 그 延命을 위해서는 國家主權의 制限도 辭讓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局面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이 貿易自由化가 우리의 表式에서 X_2' 의 資本主義地域에의 輸出을 意味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貿易自由化는 國際競爭을 더욱 激化시켜 各國에 技術革新投資「붐」을 일으킴으로써 結果적으로 供給過剩의 緩和作用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技術革新投資는 얼마 안가서 生産效果를 발휘함으로써 다시 恐慌을 促進하는 要因으로 變하고 만다.]

마지막으로 역시 2次大戰後에 햇빛을 보게 된 Market Deepening 政策의 하나의 멋진 方法으로서 「後進國開發」을 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後進國開發」이란 2次大戰後 先進資本主義國의 產業構造가 決定的으로 重化學工業中心으로 옮겨간 것을 契機로, 後進國의 輕工業化만은 許容하려는 意圖下에서 生産手段 특히 機械 · 「플란트」등을 後進地域에 輸出함으로써 恐慌要因을 덜자는 것이 그 趣旨다. 이것을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說明하면, X_1' 를 그 對外輸出을 통해서 크게 함으로써 供給過剩의 緩和의 作用을 促進케 한다는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劃時代的인 意義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次大戰 前까지는 그것을 輸出하면 恐慌要因을 덜 수 있다는 것을 確實히 알고 있으면서도, 植民地 · 半植民地의 工業化를 막기 위하여 植民地 · 半植民地에의 「플란트」輸出

을 끝내 拒絕해왔던 先進資本主義國이 2次大戰後에 이러한 措置를 취하고 나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後進地域이란 帝國主義時代의 非資本主義的 植民地를 가리키지 않고, 이미 政治的 獨立을 獲得하여 工業化過程을 달리고 있는 資本主義體制內地帶를 가리킨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後進國開發」은 實際로는 後進國의 外貨不足으로 인해서 잘 推進되고 있지 않는 狀態에 있다.⁽¹⁴⁾

4. 이 밖에 2次大戰後 모든 先進資本主義國들이 程度의 差가 있기는 하지만 『나치』獨逸이 史上 처음으로 創設해 놓은 平時下戰爭經濟』[「스턴버그」의 前掲書 p. 351]를 例外없이 採擇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아메리카」의 國防豫算은 每年 500 億「달러」線을 維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次大戰後 先進資本主義國은 그들의 조직 하나의 制約條件인 市場問題를 해결짓기 위해서 世界的 規模에서 可能的 모든 手段을 講究해 왔으며, 또 현재도 講究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恐慌防止를 위한 政策이 우리의 表式에서 誘導된다는 것도 우리는 以上에서 보았다. 여기서 그것을 一括表示하면 다음 表와 같이 될 것이다.



(14) 世界的인 規模의 Market Deepening 政策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1951 年에 發刊된 「스턴버그」의 著書 『試鍊途上에 있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는, Market Widening 이 不可能하게 된 現在, 資本主義 특히 「유럽」資本主義의 갈 길은 民主社會主義밖에는 없다는 結論이 내려지고 있다 [「스턴버그」의 前掲書, p. 538]. 이것은 「스턴버그」가 Market Widening 의 意義는 알면서도 Market Deepening 의 意義는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2次大戰後에는 Market Deepening 政策의 成功으로써 커다란 幅길은 屈曲의 恐慌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數三次의 小幅低底의 景氣後退를 가져온데 그쳤다. 그리고 또 同時에, 다음과 같은 展望도 可能케 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Market Deepening 政策이 가져오는 再分配效果와 技術革新에 立脚한 生産性向上으로써 勞動者의 貧困化現象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마르크스」가 豫言(또는 希望)한 바와 같은 階級鬭爭에 의한 資本主義의 顛覆은 적어도 「아메리카」·「유럽」에서는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 換言하면 資本主義의 momento mori [死相]는 적어도 이 瞬間에 있어서는 전혀 엿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어떤 學者가 말하고 있듯이 資本主義는 恐慌에 더하여 完全히 免疫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資本主義의 變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供給過剩의 必然性은 우리의 表式이 指示하듯이 擴大再生産 自體속에 介在하므로 擴大再生産이 進行되는 限 끊임없이 累積된다고 보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資本蓄積이 커져가고 生産性이 높아져 감에 따라 더욱 그것은 促進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次大戰後에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까닭은, 供給過剩의 必然性이 抹殺된 때문이 아니고 緩和되었기 때문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2次大戰後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 더욱 加重되고 있다는 事實은, 景氣後退의 循環期間이 4年 未滿이 보였다는 事實으로써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줄 안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는 조금도 「變容」되지 않았고 「修正」되지도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供給過剩의 關係를 우리의 表式을 통해서 簡單히 살펴보고 그치기로 하겠다. 먼저 注意해야 할 點은 X_2' 의 對外輸出은 적어도 Market Deepening 政策下에서는 Market Widening 時代와는 전혀 判異한 性格을 띠우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Market Widening 時代 즉 帝國主義時代에 있어서는 X_2' 의 對外輸出은 그대로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市場의 二重的 擴大」의 效果로 C 도 增加시킴으로써 $X_2' - C'$ 의 「갭」을 二重的으로 縮小시키게끔 「메카니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III의 1]. 그런데 이러한 Market Widening 政策이 國際收支上에서 갖는 意義가 「黑字累積政策」이란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植民地獲得運動은, 植民地에서 生産되는 金·貴金屬 그리고 그밖의 自然資源을 資本主義母國으로 그대로 所有移轉을 시키는 政治的 機能을 함으로써, 實質적으로 繼續的인 外貨의 對價供給의 效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政治的 獨立을 維持한 國家에 대해서 貿易을 통해서 「黑字累積政策」을 強行한다면 相對方 國家의 國際收支는 赤字累積이 되며 따라서 輸入抑制政策을 취하게 되므로,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獨立國에 대해서는 「黑

字累積政策」은 취할 수 없는 政策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즉 「黑字累積政策」은 殖民地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는 政策이라는 結論이 誘導된다. 그런데 이러한 Market Widening 政策 = 黑字累積政策에 대해서 Market Deepening 政策은 거기에 對應하는 固有의 國際收支上的 政策을 案出해 냈으니 그것은 곧 「擴大均衡政策」이다. 사실 資本主義體系內에서 獨立國間에 貿易을 擴大하는 方法은 「擴大均衡政策」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自명한 理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Market Deepening 이 成立되기 위한 唯一無二의 必要條件은 資本主義各國의 國際收支의 「擴大均衡政策」이 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次大戰後 이 「擴大均衡政策」을 推進시키기 위한 3大國際機構로서 IMF · GATT · IBRD 등이 設立되기에 이르렀다. 이 세가지 國際機構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仔細히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한가지 指摘해 두고 싶은 點은, IBRD가 資本主義 各國의 不均等發展을 解消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 各國의 不均等發展을 解消하는 것이 資本主義各國의 國際收支의 擴大均衡을 維持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資本主義의 延命도 可能케 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로써 抽象的인 「레닌」式的 「資本主義發展의 不均等 法則」은 完全히 그 理論的 妥當性을 잃고 말았다는 結論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안다.⁽¹⁵⁾ 그리고 또 한가지 Market Deepening 과 關聯해서 「擴大均衡政策」과 「國際分業」의 關係를 말해 두면, 「擴大均衡政策 → 國際分業」이 지그 反對 즉 「國際分業 → 擴大均衡政策」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Market Deepening 時代에 있어서는, 純理論的 見地에서 볼 때, X_2' 의 對外輸出은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으로서의 意義를 完全히 喪失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純理論面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一定額의 輸出을 했다고 하면 國際的으로 共通의인 資本主義 各國의 國際收支의 均衡政策에 의해서 또 그만큼 額數의 輸入을 自動的으로 強要받아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은 同值의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에 의해서 完全히 相殺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輸入은 [供給過剩의 促進的 要因]이 된다.] 그러면 Market Deepening 時代에 있어 世界的인 規模에서 貿易擴大가 推進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輸出이 지니는 두 가지 意義에 대해서 考察해 볼 段階에 다른 것 같이 생각한다. 무릇 輸出에는 (1) 外貨供給源으로서의 意義와 (2) 市場擴大로서의 意義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意義를 다시 自然的 意義와 經濟

(15) Market Deepening 政策은 (1) 再分配政策을 통해서 資本家와 勞動者의 所得格差를 없애고 (2) 國際機構를 통해서 資本主義各國의 發展格差를 없애고 (3) 後進國援助·後進國開發을 통해서 先進國·後進國의 發展格差를 없앨 것을 意圖하고 있다.

的 意義로 區分해서 생각해도 靚찮을 듯 竝다. 外貨供給源으로서의 意義는 自然的 意義와 同一하고, 市場擴大로서의 意義는 經濟的 意義와 同一하다. 自然的 意義 [外貨供給源으로서의 意義]라는 것은 그 나라의 商品을 輸出해서 獲得한 外貨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生産되지 않는 生産手段을 外國에서 購入해 들임으로써 그 나라의 自然資源이 갖는 制約을 補充한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 대해서 經濟的 意義는 利潤實現 [「마르크스」의 用語로써 表現하면 「價値實現」]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自然的 意義와 經濟的 意義를 比較하면, 自然的 意義가 經濟的 意義에 先行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Market Widening 時代에 있어서는 「植民地獲得」은 輸出이 지나는 自然的 意義와 經濟的 意義의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었다. 즉 前記한 바와 같이, 植民地所有는 (1) 實質的으로 外貨의 無償供給의 機能을 함으로써 資本主義母國의 國際收支上에 繼續的인 「黑字累積」을 가져오게 했고, (2) 植民地の 非資本主義的 市場을 植民地人의 土地를 收奪함으로써 擴大시키는 作用을 하였다[註(11) 參照]. 그러나 Market Deepening 時代에 있어서는 (1) 外貨는 「累積」되기 위해서 獲得되는 것이 아니라 「全額使用」되기 위해서 獲得되는 것이며 [擴大均衡], 따라서 (2) 貿易擴大를 통해서 市場擴大는 期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結局 [純理論面에서 볼 때는] 經濟的 意義[市場擴大의 意義]는 지니지 않고 自然的 意義[外貨供給源으로서의 意義]만 지니고 있다는 結論이 誘導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X_2' 의 對外輸出의 「恐慌의 緩和的 要素」로서의 意義는 Market Deepening 時代에 있어서는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完全히 喪失되고 만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대신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으로서 登場한 것이 後進國에의 「플란트」輸出인데, 後進國이 機械施設을 導入할 外貨가 不足한 現狀態 밑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큰 期待를 걸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結局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의 最後의 「캐스팅 보트」로서 登場하는 것은 불가불 赤字財政支出(通貨增發)政策일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이 必然的으로 誘導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通貨增發이 資本主義의 維持를 위해서 「必然的」이라는 「理論」은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簡單히 「證明」될 수 있을 것이다.

<證明> 表式(B)에서 $S=I$ $X_1'=D'$

라고 하더라도

$$X_2' - C' = \Delta B$$

가 되므로 結局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推進되기 위해서는』 ΔB 만큼의 通貨增發이 不可避하게 된다. Q.E.D.

그리고 모든 「供給過剩의 緩和的要因」의 動員 즉 恐慌克服對策이 結局 「需要의 供給에의 接近」을 意味하므로 [恐慌은 「供給의 需要에의 接近」을 意味한다] 恐慌克服對策은 「必然的」으로 物價上昇의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도 쉽게 理解될 수 있는 「理論」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약간 抽象的인 理論을 取扱했지만, 現實面에 着眼해서 볼 때, 2次大戰後의 資本主義의 繁榮은, 「유럽」 및 日本의 資本主義가 「아메리카」의 豐饒한 市場을 「好餌」 아닌 「好乳」로 삼아, 換言하면 「아메리카」의 多額의 金流出의 犧牲위에서 이루어졌다는 한 마디로 簡單히 要約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問題거리가 남는다. 「아메리카」資本主義의 繁榮의 秘密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國際收支는 50年代에 들어서 赤字를 示顯하기 시작했고 특히 58年 以降에서는 年年 30億「달러」臺의 大幅的인 赤字를 示顯하고 있지만, 그래도 61年 2月以降 오늘날까지 滿 5個年以上の 好景氣를 持續할 수 있었던 理由는, 첫째 「아메리카」의 國際收支의 赤字는 綜合國際收支의 赤字이지 貿易收支의 赤字가 아니란 것, 즉 貿易收支上에서는 大幅의 黑字라는 것[64년에는 67億「달러」 65년에는 48億「달러」의 黑字를 示顯], 둘째 國防費를 包含한 「아메리카」의 國內需要가 매우 컸었다는 것 等이다. 이 事實을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說明하면, 「유럽」 및 日本의 資本主義는 X_2' (그리고 X_1')의 對「아메리카」輸出黑字를 供給過剩의 緩和的 要因으로 삼을 수 있었고, 한편 「아메리카」資本主義의 繁榮은 自動安定裝置 以外에 赤字財政支出[63年 63億「달러」 64年 約 100億「달러」]에 힘입은 바 크다는 「理論」이 成立可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筆者 : 서울大學校法科大學 副教授]

(16) 65년에 「아메리카」는 對外債務를 辦濟할 金準備를 增加시키기 위해서 國內通貨의 25「퍼센트」金準備規程을 廢止하고 말았다. 이로써 「아메리카」는 國內의으로는 金本位制를 廢止하고 通貨管理制를 實質적으로 採擇한 셈이 된다.

<Summary>

A New Conception on the Reproduction Schema

—Neither Marx nor Keynes—

Won-Taik Rim *

Preface

1. The theory of crisis is the last chapter of theoretical economics. Since there is no settled conviction even in basic problems of economics with its two hundred years of history, there are diversities in the theory of crisis, the super-theory of economics.

2. Modern business cycles theory of post-Keynesians is characterised by the fact that its common analytic tools are multiplier and acceleration principle based on the theory of income. But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the theory of crisis, which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total demand and total supply should be in disequilibrium, on the post-Keynesian immediate equilibrium theory which disregards the inevitable disequilibrium in total demand and total supply.

3. The theory of crisis in Marxian economics, also, falls into a chaotic condition because of its error in the law of value. But with all the confusion and cloudiness in its theoretical system, Marx's keen vision on reality gives us far more valuable suggestion than modern business cycles theory, which is precise and technical, can give.

I. The Theory of Crisis and the Theory of Reproduction are Split in Marxian Economics

1. It is understandable that Marxian economics, which aims to clarify the laws of economic movement in modern society, regards crisis as a unique phenomenon of capitalist economy and tries to seek the reason in the funda-

* The author is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mental contradiction of capitalist economy, *i.e.*, social production and private ownership. But Marx gives only fragmentary statements on crisis, and arranging his statements we conclude that he seeks the possibility of crisis in function of circulation of money (Type I) and function of payment of money (Type II) in money economy. These, however, are merely abstract.

2. And Marx seeks to find a more fundamental possibility of crisis in the split of direct production process and circulation process. But, he says, the possibility of crisis is different from the reason of crisis. The reason of crisis is the motive at which possibility turns into reality.

3. According to Marx, the fundamental reason of crisis is poverty and consumption repression of the mass compared to the impulse of capitalist production. But it is not clear how the fundamental reason, comparative shortage of consumption or comparative surplus of prod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crisis link. In this connection there is Interpretation I of Marx's theory of crisis as underconsumption theory.

4. Some Marxian economists intend to clarify the necessity of crisis by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diminishing rate of profit. This is Interpretation II of Marx's theory of crisis. But the law of diminishing rate of profit itself is doubtful.

5. Marx, in his argument on re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social total capital, presents the following reproduction schema:

I. $C_1 + V_1 + M_1 = W_1$ (Production sector of production means)

II. $C_2 + V_2 + M_2 = W_2$ (Production sector of consumption materials)

From this schema he derives the conditions of simple and expanded reproductions. And he dare to regard their negative form as the possibility of crisis. From this Interpretation III of Marx's theory of crisis, the theory of intersectoral disproportionality of crisis, is derived by T. Baranovski.

7. Marx shows an actual possibility of proportional development by means of an illustration of a case where expanded reproduction proceeds smoothly under the three hypotheses about capital accumulation rate, rate of surplus

value, and equilibrium both in production sector of production means and in production sector of consumption materials. Rosa Luxemburg, on the other hand, illustrates a case of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under the hypotheses of increasing rate of capital accumulation, increasing rate of surplus value and higher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and she introduces the necessity of unproductive consumption or the third person, to evade the disequilibrium. But she does not develop her theory of impossibility of profit realization to a systematic theory of crisis. Lenin presents a new Marxian reproduction schema of proportionate development and denies the theory of im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surplus value by Luxemburg.

Lenin's theory of crisis contains both intersectoral disproportionate theory and underconsumption theory, but superiority is given to the former. Paul Sweezy argues that decreasing rate of profit, the immediate cause of the crisis, is the result of impossibility of full realization of commodity value, and concludes that every crisis is a realization crisis and that underconsumption theory and disproportionate theory are subordinated to it.

Thus, Marx's theory of crisis is neither clear nor systematic, and is full of contradictions. But the greatest defect of the theory is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theory of reproduction systematically. For capitalist production process develops with the alternation of expanded and contracted reproductions and the turning point is the crisis. With such misunderstanding Marx's reproduction theory became a theory without the theory of crisis and the theory of crisis was confused from its bottom.

II. The Theory of Crisis and the Theory of Reproduction Should Be Unified Thus.

1. If crisis is understood as a rapid turning point of capitalist expanded reproduction into contracted reproduction, it must be thought that crisis is prepared and breded within the expanded reproduction process. This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crisis is realized within the expanded reproduction process.

2. The basis of Marxian system of economic theory is the law of value (the law of equivalent exchange). But equivalent exchange is merely an accidental phenomenon and capitalist economy can even be considered as a system in which unequivalent exchange prevails. And all kind of profit is obtained in the process of unequivalent exchange within capital circulation. Profit can phenomenally be conside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price and cost. Therefore in profit-seeking capitalist economy price (commanded labor) must always be larger than cost (imputed labor). From this we can easily derive a conclusion that profit is materially a non-capitalist purchasing power.

$$\begin{aligned} \text{profit} &= \text{price} - \text{cost} \text{ (phenomenally)} \\ &= \text{commanded labor} - \text{imputed labor} \\ &= \text{unpaid labor in unequivalent exchange} \quad \text{(substantially)} \\ &= \text{non-capitalist purchasing power (materially)}. \end{aligned}$$

3. We can properly derive the intrinsic possibility of crisis not on the Marxian theory of exploitation of labor in the production process, but only on the theory that capitalist profit is gained by exploitation of non-capitalist purchaser in the circulation process. For the possibility of crisis is hidden within the capitalist activity by which he determines price with sum of cost and profit. The reason is that profit is the cause of general oversupply. According to T. R. Malthus inevitability of crisis in the capitalist economy necessitates unproductive demand, *i.e.*, demand without supply, and it is proved by spending policy after World War I.

4. And the inevitable motive which transforms the possibility of crisis by profit into reality is the capitalist expanded reproduction itself. The process of expanded reproduction promoted by profit maximization contains also a side which denies itself. To prove that crisis is prepared within the reproduction process we construct a price-based, and period-analytical schema, from which is derived the following fundamental relation:

$$X_{2t}' - C_t'' = S(A_t) + S(B_{1t}) + \Delta B - I_t + (X_t' - D_t')$$

where X_{2t}' is supply of consumption materials and production means for market

demand, C_t' demand for them, $S(A_t)$ and $S(B_{t-1})$ savings of laborers and capitalists respectively, ΔB increment of profit [$\Delta B = B_t - B_{t-1}$], I_t new investment, X_t' supply of ordered production means and D_t demand for the ordered production means. From this fundamental relation it is obvious that even if investment and savings are in equilibrium, the supply of consumption materials and production means for market (raw materials, small machines) and tools always exceeds demand by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nded increment of capitalist profit. That is, expanded reproduction necessarily brings excess supply. To cure the disease of capitalist system [excess supply or disequilibrium] capitalists seek to cultivate new frontier, and if new frontier is dried out, they pile up excess supply as stock. But if the stock exceeds a given level the producers-suppliers abandon the consciousness of realizability of maximum profit and in the consciousness of irrealizability of maximum profit their optimism, expectation, and self-reliance suddenly disappear and pessimism, suspicion, uneasiness, etc. take place. So they cease to endeavor for maximization of profit and for expanded reproduction. Thus crisis comes in a flash. In crisis disequilibrium is cured by the access of supply to demand. During expanded reproduction the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prevails but during contracted reproduction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is superior to that of profit maximization. Thus equilibrium is recovered not by Walrasian principle of equilibrium, that is, immediate and without resistance, but with the resistance of disequilibrium which is the product of a fundamental economic principle, the profit maximization.

6. We must investigate more concretely the process by which the accumulation of disequilibrium is exploded into crisis. It is self-evident that export of X_2' is a releasing factor while import of market-oriented consumption materials and production means is accelerating factor of oversupply.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E_t - M_t$, is the releasing factor of oversupply at period t , so that oversupply at period t is

$$(X_{2t}' + M_t) - (C' + E)_t,$$

and similar at period $t+1, t+2, \dots, t+n$. Therefore the total supply at period $t+n$ is

$$\sum_{i=0}^{n-1} (X_2' + M - C' - E)_{t+i} + (X_2' + M)_{t+n}$$

and total demand,

$$(C' + E)_{t+n}$$

giving total oversupply,

$$\sum_{i=0}^n (X_2' + M - C' - E)_{t+i}.$$

If crisis occurs at period $t+n$, total oversupply decreases from that period with fall of prices, decrease in production and prohibition of import.

7. How can the periodicity of crisis be proved? The gap between X_2' and C' becomes smaller and smaller by decrease in production and the fall of prices. ΔB becomes negative as the profit is decreasing. New investment for improvement increases by sharp competition.

Thus the phenomen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ms a series of expanded reproduction-contracted reproduction-expanded reproduction and so on. Here the periodicity of crisis is derived. The period of cyclical movement of crisis becomes shorter because, on the one h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nd improved productivity of labor accelerate the accumulation of savings and profits and, on the other, the cultivation of new foreign market is more difficult.

8. It is necessary to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our new reproduction schema and Keynesian principle of effective demand. First, our schema is a theory of disequilibrium in which the equilibrium of production means market and the equilibrium of consumption materials market cannot be achieved simultaneously, while the principle of effective demand is a theory of equilibrium in which total supply and total demand coincide. Second, in our schema the intension to maximize profit is the cause of disequilibrium while Keynesian equilibrium is achieved at the point of profit maximization. In Keynes

the equilibrium of investment and saving is necessary while in our schema it is not necessary. Lastly, Keynesian cyclical theory of modern economics fails to explain the inevitable general oversupply, which is the common error of the theory.

III. Market Widening and Market Deepening

1. We investigate here the usefulness of the above conclusion by applying it to reality. And we survey the history of crisis with Sternberg's *Capitalism and Socialism on Trial*. According to Sternberg crises in the latter half of nineteenth century are characterized by comparatively short interruption, and the reason is that European capitalism was dependent on outward expansion and American capitalism on internal expansion. Capitalism in latter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developed with unprecedentedly high velocity not by Type I capitalist expansion of permeating into backward foreign market but by Type II capitalist expansion of exploiting colonies or semicolonies. At the same time domestic market was also expanded. We can explain the comparatively short interruptions of crises in that period with our reproduction schema: The gap between X_2' and C' was contracted by increase in export of X_2' and increase in domestic demand of C' , and comparatively small savings were turned into new investment.

2. But such an expansion movement stopped before and after World War I. It made the inter-war period a stagnation, depression and crisis period, which can be explained by our schema: Inactivity of export could not release the oversupply of X_2' , improvement in productivity expanded the savings S , while investment opportunity was short. In other words, the accelerating factor of depression was dominant.

As the development opportunity of capitalism by external and internal expansion, *i.e.*, market widening, disappears capitalism went into a new phase. After the failure of London Conference in 1933, capitalism was settled as a dualistic system, a bloc economy and an economy which makes spending policy *deus ex machina*. Spending policy is a policy which pulls up demand to

supply and not *vice versa*; it is a germ of market deepening; it means the creation of purchasing power without supply; it necessarily requires state intervention and it is a theory of income redistribution. Thus the capitalism of 1930's found a new device for survival, *i.e.*, the device of market deepening and with it capitalism could overcome crisis. This is usually called revised capitalism. But it can never be a revision; it is interpenetration of capitalism.

3. It is after the World War II that market deepening policy was carried on successfully. By this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was fostered and mutual overthrow was fade away among the capitalist countries. An obvious effect of market deepening was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economic nationalism. Some examples of market deepening policies are built-in stabilizers, technique innovating investment, and mass marketing as domestic policies, and free trade and development ai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as foreign policies. The domestic policies mean the increase in C' , and foreign policies the increase in export of X_2' . Thus the development aid is a device to release the crisis.

4. Advanced countries perform war economic policy in the peace time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Nazi. It is true that there was no large crisis after World War II. But it does not mean any transformation of capitalism or immunity from crisis. The possibility of crisis exists wherever expanded reproduction exists.

5. In market deepening policy free trade aims to increase the accumulated surplus from the trade. The only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xistence of market deepening policy is the maintenance of expanded equilibrium policy in balance of payments among capitalist countries.